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 路遙의 『人生』 연구

- 1980년대 초 중국의 가치관 재정립 시도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金 女 貞

2019年 2月

# 路遙의 『人生』 연구

- 1980년대 초 중국의 가치관 재정립 시도

指導教授 趙 洪 善

金 女 貞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8年 12月

金女貞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8年 12月

# A Study on Lu Yao's Rensheng

- An Attempt to Redefine Chinese Values in the Early 1980s

Yeojeong Kim

(Supervised by professor Hong-Sun Ch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Literature

2018.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Sung-Sik Cho

Eun-Hee Kim

Thesis director, Hong-Sun Cho, Prof.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2018.12.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When the Cultural Revolution was over, China was entering a new era, changing society as a whole. Since 1978, China has taken a path of reform and openness, pursuing modernizing socialism. In 1981, contemporary writer Lu Yao created a novel called 'Rensheng' based on society at the time and published it in 1982. In this work, he explored changes in lifestyle, values, and moral ideas at the time of the opening of the reform and opening in the story of the rural knowledge youths at the intersection of urban and rural areas. Through this work, the author shows the confusion of the values of rural intellectuals and the problems of discrimination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examine why rural youth in the early years of reform and opening attempted to enter the city, and why the author advised the values that make the rural life positive in the early 1980s. Prior to that, I analyzed the main characters: rural knowledge youth Gao Jialin, rural woman Liu Qiaozhen, urban woman Huang Yaping, and rural old man Deshun. Then I analyzed why Gao Jialin was trying to enter the city. In addition to the meaning of the city for rural youths like Gao Jialin, I looked for the reason through the gap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Finally, I looked at life philosophy and advice that the author gave through Deshun, and analyzed why the author spoke positively about living in the countryside to a young man whose entry into the city was not successful in the early 1980s when reform and opening were just begun.

## 목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기존 연구 상황	2
II. 작가와 작품 소개	5
1. 작가 路遙	5
2. 작품 개괄	8
1) 『人生』의 줄거리	8
2) 『人生』의 창작배경	9
III. 인물분석	12
1. 농촌 지식인 청년 高加林	12
2. 지고지순한 농촌 여인 劉巧珍	16
3. 현대적인 도시 여인 黃亞萍	21
4. 낭만적인 낙관주의자 德順	24
IV. 주제분석	31
1. 가오자린의 도시 상상	31
1) 도시의 사전적 의미	31
2) 농촌의 실상	32
3) 야망의 기탁처	38
2. 농촌 지식청년의 도시 진출	41
3. 좌절의 극복	47
1) 끝이 아닌 결말	47
2) 가치관의 재정립	51
V. 결론	60

# I. 서론

## 1. 연구 목적

1976년 문화대혁명이 종결되자 중국은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며 정치와 경제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변화가 발생했다. 1978년 중공 제11기 3중전회에서는 사상해방과 실사구시의 방침을 강조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방침을 제기하면서 개혁 개방의 정치 노선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사회 각 영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대중들의 생활방식과 가치관 등에도 점차 변화를 가져왔다.

문학계에서도 문화대혁명이 끝나자 10년의 동란에 억압되어있던 감정을 분출하며 새로운 시기를 맞이했다. “70년대 말부터 정치·철학 등의 영역에서는 문혁이 끝난 뒤의 역사적 시기를 ‘신시기’라 칭하였는데, 문학계에서도 문혁 후의 문학을 ‘신시기 문학’이라 불렀다.”<sup>1)</sup> 신시기 문학 초기에는 문혁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 극좌정치가 인민에게 남긴 상처와 비극을 폭로하는 상흔문학(傷痕文學)이라는 새로운 조류가 형성되었다. 이어서 과거를 돌아보고 검토하는 반사문학(反思文學)이 유행하는가 하면, 4개 현대화<sup>2)</sup>에 맞춰 개혁 정책의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사회의 부조리를 폭로하는 개혁문학(改革文學)이 등장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실각되었던 문인들이 복권되고 비판 받았던 그들의 작품이 재발행 되었으며, 외국 문학작품의 판금도 풀리고 서구의 문학예술이 도입되기 시작하는 등의 변화도 일어났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작가 루야오는 당시 사회를 배경으로 한 소설 『人生』을 창작하였으며, 개혁 개방 초기 도시와 농촌의 교차지대에서 발생하는 모순으로 갈등하며 방황하는 농촌 지식청년 가오자린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 생활방식과 가치관, 도덕관념의 변화에 대해 탐색하였다.

루야오(路遙)는 중국의 저명한 당대 작가이며, 그의 대표 소설 『人生』과 『平凡的世界』는 발표 후부터 현재까지 많은 중국 젊은이들에게 환영받고 있는

1) 洪子誠, 박정희 옮김, 『중국당대문학사』, 서울, 비봉출판사, 2000, 147쪽.

2) 농업의 현대화, 공업의 현대화, 국방의 현대화, 과학기술의 현대화.

스테디셀러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루야오는 아직 낯선 작가이면서 그동안 그의 작품을 직접 접할 수 없었는데, 2017년 말에야 비로소 루야오의 소설 『人生』이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이제 루야오의 소설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면서 그의 소설에 대한 연구가 점차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루야오의 이름을 널리 알린 두 작품 중에서도 『人生』이라는 작품을 선택해 연구를 하려고 한다.

1982년에 발표된 중편소설 『人生』은 농촌 출신 지식청년의 모순과 방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소설을 쓰면서 작가가 중점을 둔 것은 도시와 농촌의 교차지대였다. 루야오는 농촌에서 태어나 작은 현성으로 나갔다가 대도시까지 가서 일을 했던 사람이다. 그는 “농촌은 내게 익숙하고, 도시는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그러나 가장 익숙한 것은 농촌과 도시의 ‘교차지대’이다”<sup>3)</sup>라고 했다. 도시와 농촌의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그 사이의 교차지대에서는 모순과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현대 생활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어 회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루야오는 현실적인 생활 속의 모순 충돌을 반영하기 위해 이 작품을 쓰게 되었다. 그는 소설에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에 따른 생활 속 모순의 충돌을 통해 농촌 출신 지식인의 진로를 비롯한 청년문제와 애정 혼인문제, 도농 차별뿐만 아니라 사회 속의 부조리 등을 포함하여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가오자린이 도시를 갈망하고 진출하는 과정을 짚어보면서, 개혁 개방 초기에 농촌의 지식 청년이 왜 도시로 진출하려고 했으며, 작가는 왜 사회 전체가 개혁과 발전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1980년대 초에 도시 진출이 좌절된 청년에게 농촌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가치관을 새로이 조언하는 것으로 결말을 짓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기존 연구 상황

---

3) 農村我是最熟悉的; 城市我正在努力熟悉着; 而最熟悉的是農村和城市的“交叉地帶”。路遙, 『早晨從中午開始』, 北京, 北京十二月出版社, 2012, 118쪽.

중국에서는 루야오의 소설이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작가와 작품에 대한 연구도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 본문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중국의 CNKI 中國知网에서 ‘路遙’를 주제로 검색했을 때 2,025건의 검색결과가 나왔으며, 그중 석박사 논문이 228편, 정기 간행물에 발표된 자료가 1,520편이었다. 제목(篇名)을 ‘路遙’로 검색했을 때에는 1,046건이 나왔으며, 그중 석박사 논문 104편, 정기 간행물 자료 837편이 검색되었다. 이 자료들의 연구 대상을 보면 작가 루야오에 대한 연구와 그의 대표소설 『人生』과 『平凡的世界』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그 연구 주제는 작가가 주로 배경으로 삼고 있는 도농 교차지대와 작품의 주요 인물에 대한 연구, 서사기법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작품을 통한 80년대 문학, 신시기 현실주의, 산베이 지방의 향토문화에 대한 연구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가 이뤄졌다. 연구시기로 살펴보면 1980년대에는 한 해에 열 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연구 자료가 많지 않으나 90년대부터 점차 그 수가 늘어나며, 2000년대 들어서부터 현재까지 한 해 수십 건에서 백여 건이 될 정도로 연구 수가 많아진다. 이를 보면 『人生』의 창작 이후 루야오가 전국적으로 이름을 널리 알리면서 그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平凡的世界』가 큰 호응을 얻은 뒤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루야오에 대한 연구가 현재까지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이 계속해서 많은 독자들에게 읽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본문의 연구 대상인 『人生』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위 사이트에서 주제를 ‘路遙人生’으로 검색했을 때는 283건의 결과가 나왔고 그중 석박사 논문이 99편이었으며, 동일 키워드로 제목 검색을 했을 때는 111건이 나왔고 그중 석박사 논문이 7건이었다. 이 작품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가오자린의 비극과 주요 인물의 애정 서사, 도농 교차지대에 있는 지식청년의 갈등과 모순 등을 주제로 다루었으며, 작품 속 향토관념과 현대성 의식, 창작의 대비기법, 『平凡的世界』와의 비교 등의 주제도 있었다. 작품 속 인물에 대해 분석한 연구로는 주인공인 가오자린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류차오전에 대한 개별연구도 있었으며, 황야핑에 대한 연구와 더순 영감에 대한 연구는 정기 간행물에 각각 한 편씩만 있었다.

중국의 상황과는 달리 한국에서 루야오라는 이름은 중국 현당대 문학사 저작에서나 접할 수 있으며 그조차도 간략한 소개에 그치는 정도이다. 한국에서는 많

이 알려지지 않은 작가이기 때문인지 루야오와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현재 그와 관련된 석사 학위 논문이 한 편, 학술지 게재 논문이 3편 정도가 있다.<sup>4)</sup> 그 중에서 『人生』에 대한 논문은 학위 논문 한 편(최정임), 학술지 논문 한 편(성근제)이 있다. 전자는 주인공 가오자린을 분석하여 그의 비극적 삶의 원인을 연구한 것으로 비극의 원인을 개인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하였는데, 개인적 문제는 성공을 위한 사랑의 선택과정과 인생추구의 맹목성이며, 사회적 문제는 낙후된 주변환경과 불건전한 사회환경이라고 보고 있다. 후자의 학술지 논문에서는 루야오와 그의 작품이 주목을 받고 있었음에도 도시와 농촌의 교차지대라는 서사가 당시에는 주류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못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했는데, 이 문제를 농촌 지식청년의 도시 상상과 농민공 문제를 통해 연구하였다.

위의 논문들은 주로 주인공인 가오자린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주인공 가오자린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애정 서사를 이끌어가는 농촌 여인 류차오전과 도시 여인 황야핑, 그리고 가오자린에게 인생의 조언을 해주는 농촌 노인인 더순이라는 인물을 함께 분석하려고 한다. 그런 후 가오자린이 왜 도시를 갈망하는 지를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더순의 말을 빌려 작가가 말하고 있는 인생철학과 젊은이들에 대한 조언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혁 개방이 막 시작된 1980년대 초에 왜 사회 전체가 개혁과 발전을 논하는 시기에 도시 진출이 좌절된 청년에게 농촌의 삶을 긍정적으로 조언하는 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4) 백영선, 「『平凡的世界』에 나타난 주요 인물의 성장유형과 작가의식 고찰」, 『중국학』 vol.54, 2016.

백영선, 「路遙의 『平凡的世界』에 나타난 陝北 민속문화 고찰」, 『중국학』 Vol.58, 2017.

성근제, 「루야오의 '도농 교차지대'와 은폐된 서사」, 『도시인문학연구』 vol.9 no.1, 2017.

최정임, 「路遙의 『人生』 研究 : 주인공 高加林的 비극적 삶의 원인분석 중심으로」, 全北大學校 教育大學院, 2004.

## II. 작가와 작품 소개

### 1. 작가 路遙

루야오(路遙)는 본명이 王衛國이며 1949년 12월<sup>5)</sup> 陝西省 清澗縣 王家堡村의 빈곤 농민 가정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허우푸(厚夫)의 『路遙傳』에 의하면 루야오가 태어나자 할아버지는 그에게 wei라는 아명만 지어주었고, “소학교에 입학한 후에 wei라는 아명을 확장시킨 王衛國라는 정식 이름을 갖게 되었다”<sup>6)</sup>라고 한다. 그는 가난한 집안 환경으로 인해 1957년에 延川縣 郭家溝村에 사는 큰아버지의 양자로 들어가는데, 그때의 일에 대해 루야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아버지는 농민이며 글자를 몰랐다. 집에는 십여 명의 식구가 있는데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이 이불만 있는 완전 ‘거지’상태였다. 일곱 살 때 집에서는 나를 키울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큰아버지 댁까지 밥을 빌어먹으며 데려가서 양자로 줬다. 그때의 빈곤한 생활의 경험은 내게 매우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비록 그때가 겨우 일고여덟 살이었지만 그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我父親是個老農民，一字都不識。家里十來口人，沒有吃的，沒有穿的，只有一床被子，完全是“叫花子”狀態。我七歲時候，家里沒有辦法養活我，父親帶我一路討飯，討到伯父家里，把我給了伯父。那時候貧困生活的經歷，給我留下了十分強烈的印象，盡管我那時才七八歲，但那種印象是永生難忘的。<sup>7)</sup>

루야오는 1958년 馬家店小學에 입학해 공부하다 1961년에는 延川縣城의 城關小學 高小部에 들어갔다. 졸업 후 큰아버지의 집안이 중학교를 보내줄 형편이 되지 않았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1963년 延川中學에 입학하고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 그때의 산베이 지방은 생활이 아직 어려웠고 그의 집안 환경은 더 열악했는데, 당시 중학교 3년간의 생활은 그의 작품 『在困難的日子里』에 잘 나타나

5) 루야오의 출생일은 자료에 따라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12월 3일로 기록하고 있는 자료가 많으나 厚夫의 『路遙傳』과 楊曉帆의 『路遙論』에서는 12월 2일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6) 上小學后，我們的傳主終於有了在“wei”這個小名上擴展的正式官名——“王衛國”。厚夫，『路遙傳』，北京，人民文學出版社，2015，5쪽.

7) 路遙，『早晨從中午開始』，北京，北京十二月出版社，2012，207쪽.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움을 이어간 그는 1966년 西安石油化工學校에 합격하지만 문화대혁명이 발발하면서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홍위병 활동에 참여했다. 홍위병이 해산되고 1968년 하향운동이 시작되면서 루야오도 농촌으로 돌아가 노동을 하게 되었고, 이듬해에는 馬家店小學에서 민관교사(民辦教師)<sup>8)</sup>를 하기도 했다. 1969년에 베이징의 지식청년들이 옌안지역으로 많이 내려왔는데 당시 내려온 지식청년 중에는 현 국가주석 시진핑과 작가 스테성(史鐵生), 타오정(陶正)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sup>9)</sup> 그들은 현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도시의 문화관념을 보여주며 산베이 지역의 청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루야오 또한 그들과 교류를 하면서 영향을 받았다.

1969년 겨울 루야오는 농민공 신분으로 성관공사의 마오쩌둥사상선전대에 배속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해에 그는 인생 최대의 좌절을 맛보게 된다. 1970년 봄 조반과의 반혁명 파괴활동을 타격하던 시기에 루야오도 무장투쟁 당시의 일로 정직당하고 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때 베이징에서 내려온 지식청년 린홍과 교제 중이었던 루야오는 연인인 린홍에게 절교편지까지 받게 된다. 이중으로 큰 충격을 받았던 당시의 일에 대해 루야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때 나는 인생의 앞길이 일순 망연해진데다 실연까지 해서 고향의 연못에 빠져 자살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달빛 아래 물가에 이르렀을 때는 뛰어내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마음속에서 삶에 대한 더욱 깊은 애착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결국 홀가분하게 몸을 돌려 어느 노총각의 외밭으로 가서 참외 몇 개를 훔쳐 먹었다.

那時，我曾因生活前途的一時茫然加上失戀，就準備在家鄉的一個水潭中跳水自殺。結果在月光下走到水邊的時候，不僅沒有跳下去，反而在內心喚起了一種對生活更加深沉的愛戀。最後輕鬆地折轉身，索性摸到一個老光棍的瓜地里，偷着吃了好幾個西瓜。<sup>10)</sup>

루야오는 이후 縣革命委員會通訊組에 진입했다가 이듬해 縣毛澤東思想文藝宣傳隊에 들어가 문예 창작활동에 종사했다. 이 시기에 루야오는 시를 창작하면서 『我老漢走着就想跑』를 처음으로 발표하였고, 이어서 『車過南京橋』와 『塞上柳』를 『革命文化』에 발표하게 되면서 필명을 ‘纓依紅’으로 하려고 했다. 그리

8) 정식 교원 자격이 없는 교사. 1950-1990년대 주로 교사가 부족한 농촌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다. 路遙, 허유영 옮김,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고양, 예담, 2017, 7쪽.

9) 厚夫, 『路遙傳』,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5, 60쪽 참고.

10) 『早晨從中午開始』, 94-95쪽.

나 시인 원빈(聞頻)이 필명을 바꾸는 게 좋겠다고 건의하자 ‘路遙知馬力，日久見人心’<sup>11)</sup>이라는 문장의 앞 글자를 따와 ‘路遙’로 필명을 정했다.<sup>12)</sup> 그 후 린바오(林彪)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린바오의 반혁명집단에 王維國라는 이름이 있어서 그와 발음이 같은 王衛國라는 실명을 쓰지 않기로 결정하고 정식으로 王路遙로 개명했다.<sup>13)</sup> 1972년에 루야오는 延川文藝宣傳隊에 창작원으로 전입했고, 이 해에 소설로는 처음으로 단편소설 『優勝紅旗』를 『山花』에 발표했으며 이 작품은 1973년에 『陝西文藝』 창간호에도 실렸다.

1973년에 루야오는 延安大學 中文系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인 문학 창작을 시작하였고, 1976년 대학 졸업 후 『陝西文藝』(현재의 『延河』)에서 편집자로 근무했다. 1978년에는 베이징에서 온 지식청년이자 동료였던 린다(林達, 필명 程遠)와 결혼하여 딸 루위안(路遠)을 낳았다. 1978년에 창작한 소설 『惊心动魄的一幕』가 1980년 『当代』에 발표되었고, 이 소설로 제1회 전국 우수 중편 소설상(第一屆全國優秀中篇小說獎)을 받았다. 1981년에 창작한 중편소설 『人生』은 1982년 『收穫』 第3期에 발표되었으며 제2회 전국 우수 중편 소설상(第二屆全國優秀中篇小說獎)을 수상했다. 이 소설이 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루야오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이 작품은 또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는데, 영화 『人生』은 루야오가 직접 극본 각색에 참여했으며 1984년 제8회 대중영화백화상 최우수작품상(第八屆大眾電影百花獎最佳故事片獎)을 받았다. 1982년에는 또 자전적 성격이 강한 중편소설 『在困難的日子里』를 발표해 『当代』文學中長篇小說獎을 받기도 했다. 줄곧 중단편만 써왔던 루야오는 『人生』이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은 후 장편 대작을 쓰기로 결심하였고, 1985년부터 장편 소설 『平凡的世界』를 창작하기 시작하여 1988년에 완성하였다. 『平凡的世界』는 1991년 3월 제3회 마오둔문학상(第三屆茅盾文學獎)을 수상하면서 루야오에게 생애 최고의 영예를 안겨줬다.

장기간 창작에 몰두했던 루야오는 건강이 나빠졌지만 병중에도 활동을 이어가면서 독자들과의 성원에 호응하고자 1991년 10월에 『平凡的世界』의 창작과정을

11) 宋代 陳元靚의 『事林廣記』에 나온 문장으로 속담처럼 쓰인다.

12) 厚夫, 『路遙傳』, 73쪽 참고.

13) 위의 책, 76쪽 참고.

담은 수필 『早晨從中午開始』를 쓰기 시작하였고, 1992년 3월 원고가 완성돼 『銅川礦工報』에 발표했다. 간경화를 앓고 있던 루야오는 병세가 악화되면서 1992년 8월에 延安地區人民醫院에 입원을 하였다가 9월에는 西安西京醫院으로 옮겼다. 1992년 11월 17일 루야오는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sup>14)</sup>

## 2. 작품 개괄

### 1) 『人生』의 줄거리 <sup>15)</sup>

가오자린(高加林)은 현성(縣城)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 마덴(馬店)의 소학교에서 민판교사로 근무하던 중 가오자촌(高家村)의 서기인 가오밍러우(高明樓)의 아들 썬싱(三星)에게 교사 자리를 뺏기고 농촌으로 돌아온다. 자린은 자신의 일자리를 부당하게 뺏어간 가오밍러우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 가오자촌을 떠나고 싶지만 현실은 농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실의에 빠져있던 자린은 류차오전(劉巧珍)에게 고백을 받고 사랑하게 되면서 위안을 얻고, 농촌에서의 노동에도 조금씩 적응한다. 가끔씩 도시와 미래에 대한 환상으로 심란하기도 하지만 차오전과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마음을 다스린다. 그러나 낙후되고 폐쇄적인 농촌마을의 환경과 사회의 부조리한 면들이 자린으로 하여금 성공과 도시에 대한 갈망을 부추긴다. 신장에 있던 자린의 숙부 가오위즈(高玉智)가 노동국장이 되어 돌아오자 자린의 아버지가 현재 농촌에 와 있는 자린의 처지를 말해보지만 가오위즈는 채용비리는 저지를 수 없다며 거절을 한다. 그런데 자린의 교사 자리를 뺏는데 연관이 있었던 마잔성(馬占勝)이 가오위즈 몰래 뒤에서 손을 써서 자린의 일자리를

14) 楊曉帆, 『路遙論』, 北京, 作家出版社, 2018, 264-266쪽 참고.

15) 이 작품은 처음부터 제목을 『人生』이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1981년 『惊心动破的一幕』로 상을 받을 때 알게 된 中國青年出版社의 왕웨이링(王維玲)은 루야오가 새로 쓰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원고 청탁을 했다. 왕웨이링의 독려에 힘입어 루야오는 초고를 써내 『生活的樂章』이라는 제목으로 그에게 보냈는데, 왕웨이링은 동료와 상의 후 제목을 바꾸고 내용을 수정할 것을 제의했다. 왕웨이링은 루야오의 소설 앞부분에 인용하고 있는 류칭(柳青)의 『創業史』에 나온 구절이 작품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 구절에서 첫 두 글자를 따와 『人生』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다시 건의했다. 루야오도 그에 동의해 결국 소설의 제목은 최종적으로 『人生』으로 결정되었다. 『路遙傳』, 153-155쪽 참고.

마련해준다.

현성으로 올라와 통신간사 즉 기사를 하게 된 자린은 비록 뒷문으로 들어왔지만 적극적으로 일을 하면서 직속 상사에게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된다. 현성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하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 황야핑(黃亞萍)은 자린이 현성에 온 사실을 알고 그를 찾아가는데, 장커난(張克南)과 교제를 하고 있었지만 자린에게 마음이 흔들린다. 자린도 야핑이 다방면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 그녀와 대화를 하는 게 즐거웠다. 황야핑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건 자린이라 생각해 커난과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고, 자린에게 고백을 하면서 곧 가족이 난징으로 옮겨 가는데 함께 가자고 한다. 고백을 받은 자린은 차오전과 야핑을 비교하다가 결국 사랑과 자신의 미래를 동일시하여 야핑을 선택해 새로운 연애를 한다.

어느 날 자린의 아버지와 더순(德順) 영감이 찾아와 차오전을 버린 일을 꾸중하지만, 자린은 농촌에서 평생 땅 파며 살기 싫다고 한다. 차오전은 자린과 헤어진 후 상심하다 줄곧 자신에게 혼담을 넣어오던 마완(馬拴)과 결혼을 한다. 커난이 야핑과 이별을 한 후 커난의 어머니는 자린이 뒷문으로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을 알아내 당위원회 기율검사 위원에게 고발한다. 자린의 채용비리 문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자린의 숙부도 자린을 해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결국 자린을 해임해 생산대대로 돌려보내고 마잔성의 직위를 해제하기로 한다. 차오전의 결혼 소식과 자신의 해임 소식을 듣고 난 후에야 현실을 직시하게 된 자린은 야핑과의 관계를 정리해 가오자촌으로 돌아간다. 다마허(大馬河)의 다리에서 자린이 차오전을 생각하며 울고 있을 때 더순 영감이 다가와 땅에서 노동하는 것도 천하지 않고 사는 재미가 있으니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만 자린이 잃은 건 차오전이라는 금덩이라고 말해준다. 차오전이 가오밍러우에게 자린의 교사 자리를 부탁했다는 말을 들은 자린은 더순 영감의 발밑에 엎드려 흙을 움켜쥐고 고통스럽게 흐느낀다.

## 2) 『人生』의 창작배경

루야오가 이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은 1979년이였다. 하지만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 다시 쓰기를 반복했다.

나는 『人生』을 쓰면서 3년간 고민을 반복했다. 이 작품은 1981년에 완성했으나 사실은 1979년부터 쓰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매우 긴장하며 창작과정에 들어갔지만 다 쓴 후에는 원고를 찢어버렸다.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 당시에 발표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심지어 그것을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1980년 다시 한 번 써봤지만 역시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인물들의 관계가 잘 엮여지지 않아서였다.

我寫《人生》反復折騰了三年——這作品是一九八一年寫成的，但我一九七九年就動筆了。我非常緊張地進入了創作過程，但寫成后，我把它撕了，因為，我很不滿意，盡管當時也可能發表。我甚至把它從我的記憶中抹掉，再也不願想它。一九八〇年我試着又寫了一次，但覺得還不行，好多人物關係還沒有交織起來。<sup>16)</sup>

이후 루야오는 1981년에 다시 쓰기 시작해 20일 가량을 원고 작성에만 몰두해 초고를 완성하게 된다.

루야오가 『人生』을 창작할 당시의 중국은 개혁 개방 초기였으며, 루야오는 『人生』의 프랑스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책의 이야기는 중국의 특수한 역사시기에 발생하는데, ‘4인방’이 몰락하고 중국의 개혁이 아직 대규모로 전개되지 않은 시기이다. 그때 중국은 악몽과도 같은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생활을 준비하고 탐색하는 중이었으며, 장기간 쌓여온 각종 모순이 중국 사회생활 속에서 매우 복잡하고 심각한 상태에 처해있었다. 비극의 주인공은 바로 이 시기 중국의 산물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의 비극은 뚜렷한 사회와 시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這本書的故事發生在我國一個特殊的歷史時期——“四人幫”剛剛覆滅，中國的改革還沒有大規模展開的時候。那時，中國一個噩夢般的時代結束了，而新的生活還處於醞釀和探索之中，長期積累起來的各種矛盾在中國社會生活中已經處於最複雜最深刻的狀態。悲劇的主人公就是中國這個時期的產兒——他們的悲劇當然有着明顯的社會和時代的特征。<sup>17)</sup>

특수한 역사시기란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개혁개방의 노선을 막 건기 시작한 시기이다. 문화대혁명이라는 전무후무한 10년 대 동란 기간의 중국은 사상이 통제되었고 당의 정치노선에서 벗어나는 문화 예술은 자본주의의 산물로 여겨져 창작의 자유가 없었다. 교육기관이 문을 걸어 닫았고 홍위병 조직에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며 혁명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목을 씌워 핍박하고 문화유

16) 『早晨從中午開始』, 204쪽 참고.

17) 路遙, 「『人生』法文版序」, 『早晨從中午開始』, 142쪽.

산과 기간시설들을 파괴했다. 그 피해가 심해지자 다시 지식청년들을 농촌으로 보내는 하향운동이 벌어졌고, 교육기관이 다시 문을 열지만 사상통제는 계속되었다. 농촌에서는 집단생산체제인 인민공사 제도를 유지하면서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고 경제는 침체되었다. 문화대혁명이 종결되자 억압되었던 그늘에서 벗어난 중국은 사회 전반에 변화가 일어났다. 사상해방과 실사구시를 강조하고 4개 현대화를 통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방침이 제기되면서 중국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개혁을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뀔 수는 없었다. 화귀평 집권기에 무모하게 진행한 신약진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농업과 공업의 비율 불균형 및 경공업과 중공업의 불균형이 초래되었으며, 주택과 위생 등 생활에 밀접한 부분에 대한 투자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도 커서, 전체 9억 인구 중 80%에 달하는 농촌인구는 여전히 생활수준이 낮고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 가정이 많아 생활의 개선이 필요했다.<sup>18)</sup> 또한 상산하향(上山下鄉)했던 젊은이들이 농촌에 묶여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외에도 사회 곳곳에 부패와 부조리가 존재하며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그러나 1978년 이후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농촌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주목했다. 농촌에서는 인민공사의 집체노동 시스템이 개인생산 청부제로 점차 바뀌고 있었고, 자류지 농사와 부업이 인정되면서 농민의 생산 의욕도 고취되고 있었다. 루야오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당시 사회를 배경으로 『人生』을 창작하게 된다.

---

18) 신승하, 『中國當代40年史』, 서울, 고려원, 1993, 321-331쪽 참고.

### Ⅲ. 인물분석

#### 1. 농촌 지식인 청년 高加林

주인공 가오자린은 농촌과 도시 사이의 교차지대에 위치한 청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농촌 출신의 지식청년인 가오자린은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도시로 나가길 바라면서 자신의 운명에 도전하는 인물이며, 당시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과 본인의 내적 갈등으로 인해 방황하는 청년이다.

가오자린은 농민의 아들이지만 부모님처럼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에서 살기를 원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

비록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변변한 재주도 없는 아버지가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으로 공부시킨 덕분에 그는 몸에 밴 진흙 냄새를 거의 털어냈다. 그에게는 남들이 말하는 지식인의 고상함이 있었다.<sup>19)</sup>

他雖然出身寒門，但他沒本事的父親用勞動換來的錢供養他上學，已經把他身上的泥土味沖洗得差不多了。他已經有了一般人們所說的知識分子的“清高”。<sup>20)</sup>

현성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졸업 후에도 교사 일을 하면서 흙에서 떨어져 있던 자린은 외모도 농민과는 거리가 멀어져 있었다.

후리후리한 몸에는 육체노동이 남긴 그 어떤 흔적도 없지만 운동으로 단련된 다부진 근육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얼굴은 조금 거무스름하지만 우뚝한 콧대에 큰 눈, 날렵한 눈썹이 특히 매력적이었다. 머리가 덩수룩하지만 신경 쓰지 않고 되는 대로 자라게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기른 것 같았다.<sup>21)</sup>

修長的身材，沒有體力勞動留下的任何印記，但又很壯實，看出他進行過規範的體育鍛煉。臉上的皮膚稍有點黑；高鼻梁，大花眼，兩道劍眉特別耐看。頭髮是亂蓬蓬的，但不是不講究，而是專門講究這個樣子。<sup>22)</sup>

19) 路遙, 허유영 옮김,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고양, 예담, 2017, 24쪽.

『人生』의 원문을 인용한 부분의 번역은 모두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를 따랐다.

20) 『早晨從中午開始』, 17쪽 참고.

21)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7쪽.

농촌 출신이지만 육체노동을 하지 않았던 가오자린은 운동으로 다져진 몸을 가지고 있었고 머리도 나름대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연출한 듯 보였다. 그리고 류차오전의 말에 의하면 자린에게서는 비누냄새가 풍겼다. 이처럼 자린은 농민의 아들이지만 겉모습은 도시 사람에 가까워져 있었다.

가오자린의 성격을 살펴보면 자존심과 열등감이 뒤엉켜있다. 현성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문학을 좋아하며 국제문제에 관심이 많은 지식청년인 자린은 자존심이 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난한 농민 집안 출신으로 인한 열등감도 갖고 있었다. 민관교사를 못하게 되어 농촌으로 돌아온 자린은 현성의 장에 만터우를 팔러 갔다가 고등학교 동창인 황야핑과 장커난을 마주치게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친척집에 간다고 둘러댄다. 그러면서도 부식매장 주임으로 승진한 장커난이 악의 없는 말을 건네자 자린은 열등감 때문에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껴 날선 말로 상대방을 난처하게 만든다.

커난이 말했다.

“담배나 술 같은 게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 최대한 도와줄게. 내가 다른 재주는 없어도 그런 자질구레한 일은 도와줄 수 있어. 요즘 시골 사람들은 뭘 사려고 해도 쉽지가 않잖아!”

장커난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가오자린은 자격지심 탓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장커난이 우쭐해하며 자기 지위를 과시하려는 것으로 들렸다. 자존심이 너무 강한 가오자린은 요즘 눈에 보이는 건 뭐든 멸시하는 심리가 있었다. 그가 다소 고까운 어투로 툭 내뱉었다.

“살 게 있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게! 어떻게 감히 동창에게 신세를 지겠어?”

장커난의 얼굴이 벌겍게 달아올랐다.<sup>23)</sup>

“要買什么烟酒一類的東西，你來，我盡量給你想法。我這人沒其它能耐。就能辦這么些具体事。唉，現在鄉下人買一点東西真難!” 克南對他說。

盡管張克南這些話都是真誠的，但高加林由于他自己的地位，對這些話却敏感了。他覺得張克南這些話是在夸耀自己的优越感。他的自尊心太强了，因此精神立刻處于一種藐視一切的狀態，稍有点不客气地說：“要買我想其它辦法，不敢給老同學添麻煩!”

一句話把張克南刺了个大紅臉。<sup>24)</sup>

22) 路遙, 『人生』, 北京, 北京十二月出版社, 2012, 19쪽.

23)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37쪽.

24) 『人生』, 28쪽.

그들과 헤어진 후 가오자린은 장을 보러 온 커난의 어머니를 보게 되는데 바로 숨어버린다. 아는 사람에게 만터우를 파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오자린은 황야핑에게도 열등감이 있었다. 고등학교 때 그는 황야핑과 함께 문학과 국제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지만 두 사람의 조건이 너무 차이가 나서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없었다.

황야핑과 자신을 비교할 때마다 극복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꼈다. 그 자신이 그녀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가정환경, 경제적 조건,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 때문이었다. 장커난은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다.<sup>25)</sup>

他和黃亞萍相比，有難以克服的自卑感。這不是說他個人比她差，而是指家庭、經濟條件和社會地位這些方面而言。在這些方面，張克南全部有。<sup>26)</sup>

가오자린의 이런 성격은 전형적인 빈곤 농민인 아버지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자식이 부당하게 민판교사에서 해임된 일로 괴로워하면서도 가오밍러우에게 내색하지 못하고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가지만, 가오자린은 분에 겨워 가오밍러우보다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하게 된다.

가오자린은 농촌 출신이면서 도시로 나가 자신의 이상을 펼치고 싶어하는 인물이다. 교사 자리를 뺏기고 마을로 돌아온 가오자린은 류차오전과의 연애를 통해 농촌에서의 삶에도 조금씩 적응해가지만, 아무리 사랑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어도 도시에 대한 꿈을 완전히 접지는 못한다. 그러다가 일자리를 얻어 현성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황야핑을 재회하는데, 더 큰 도시로 나갈 기회를 줄 수 있는 황야핑이 고백해오자 결국 가오자린은 류차오전을 버리고 황야핑과 사귈다. 이는 가오자린의 가치관이 자신의 이상을 펼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랑과 이상을 동일시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 순수한 애정 대신 목적의식이 있는 새로운 연애관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가오자린은 도시의 삶을 동경하지만 농촌을 경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도 농촌 사람들이 땀 흘리며 힘들게 노동을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도시 사람이 농촌 사람을 깔보는 것은 참지 못한다. 농사를 위한 거름으로 쓸 인분을 뿌리

25)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40쪽.

26) 『人生』, 30쪽.

현성에 갔을 때 커난 어머니가 똥냄새가 역겹다며 촌놈들이라고 욕하는 말을 들은 가오자린은 화가 난다.

그녀가 또 욕지거리를 했다.

“촌놈들 징글징글해!”

자린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콧부리가 시큰거렸다. 농촌 사람들을 이렇게 깔보다니! 일 년 내내 해 뜨면서부터 해 질 때까지 고된 노동을 해가면서 수확한 곡식을 잘 말리고 키질해서는 저런 사람들 먹으라고 제일 좋은 것을 골라 성으로 보낸다. 그리고 저들이 그걸 먹고 궁둥이를 치켜들어 똥을 싸고 오줌을 싸면 다시 농촌 사람들이 와서 변소 청소를 해준다. 그런데도 이토록 농촌 사람들을 깔보다니!<sup>27)</sup>

“這些鄉巴佬，真討厭!” 那婦女又罵了一句。

高加林這下不能忍受了! 他鼻根一酸，在心里想：鄉里人就這麼受氣啊! 一年辛辛苦苦，把日頭從東山背到西山，打下糧食，晒干簸淨，揀最好的送到城里，讓這些人吃。他們吃了，屁股一擱就屙就尿，又是鄉里人來給他們拾掇，給他們打掃衛生，他們還這樣欺負鄉下人!<sup>28)</sup>

하지만 농촌의 낙후성과 폐쇄성이 자린을 다시 도시로 가고 싶게 만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민은 도시로 나갈 기회를 얻기가 힘들다. 그래서 자신이 채용비리의 피해자이면서도 뒷문으로 현성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자 그것이 정당치 못한 방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시로 진출한다. 그리고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순박한 류차오전을 사랑하면서도 대도시로 가고 싶어하는 자신의 꿈을 이뤄줄 황야핑의 조건으로 인해 갈등하다 류차오전을 버리고 황야핑을 선택하고 만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와 더순 영감이 그를 찾아와 차오전을 버린 일을 꾸짖지만 자린은 자신의 인생이라며 그들의 충고를 듣지 않는다. 이는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 그의 도덕성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황야핑과 함께 더 넓은 세상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던 가오자린은 인생 최대의 좌절을 맛보게 된다. 뒷문으로 일자리를 얻은 것이 발각되어 직위를 해임하고 농촌으로 돌려보내지게 된 것이다. 가오자린은 자신의 꿈이 백일몽이 되어 사라지고 나서야 현실을 직시한다. 이상주의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또 현실적인 가오자린은 자신과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될 황야핑과 헤어진다.

27)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148쪽.

28) 『人生』, 124쪽.

후 농촌으로 간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가오자린의 마음속 갈등을 부추겨 복잡한 성격을 만드는데 영향을 주었고, 결국 가오자린은 도시와 농촌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순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사랑도 없고 꿈도 잃은 채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가오자린이 절망을 안고 농촌으로 돌아갔을 때 류차오전은 이미 시집가버렸지만 뜻밖에 마을 사람들의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더순 영감에게서 삶과 행복에 대한 조언을 듣게 된다. 가오자린은 지식청년인 자신이 농촌 노인에게 인생의 진리를 듣게 될 줄은 몰랐지만 더순의 말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새로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된다.

## 2. 지고지순한 농촌 여인 劉巧珍

류차오전은 가오자린을 좋아하는 농촌 여인이다. 그녀는 가오자린을 몇 년 동안 몰래 짝사랑 하다가 그가 농민으로 돌아오게 되자 용기를 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여 그와 연인이 되는데, 순수하면서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인물이다.

가오자촌에서 경제적 여건이 가장 좋으면서 가오밍러우 다음으로 존중받는 류리번(劉立本)에게는 딸이 셋이 있는데, 그중 둘째 딸이 류차오전이다.

세 딸 모두 류리번의 영민함은 물려받았지만 성품은 류리번보다 훨씬 나왔다. 마을의 가난한 농민들을 깔보고 거들먹거리는 아버지와 달리 웃어른을 공경하고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들 세 자매를 좋아했다. 세 자매 모두 외모는 출중하지만 아쉽게도 차오전과 그녀의 언니 차오잉은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여동생 차오링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소문에 전교에서 제일 인기가 많다고 했다. 농민에게는 류리번의 딸이 훌륭한 배필감임에 틀림없다.<sup>29)</sup>

她們都繼承了劉立本的精明，但品行看來都比劉立本端正；對待村里貧家薄業的莊稼人，也不像她們的父親那般傲氣十足。她們都尊大愛小，村里人看來都喜歡她們。三姐妹長得都很出眾，可惜巧珍和她姐巧英都沒上過學；妹妹巧玲正上高中，听說是現在中學里的“校花”。對於一個農民來說，找到劉立本家的女子做媳婦的確是難得的。<sup>30)</sup>

29)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55-56쪽.

30) 『人生』, 44쪽.

이처럼 류차오전은 모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면서 외모도 출중하여 농촌에서는 최고의 신붓감이었기에 중매인들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지만 류차오전은 모두 거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꽃처럼 아리따운 류리번의 둘째 딸은 평범한 농촌 처녀가 아니었다. 비록 학교를 다니지는 못했지만 사물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정신적으로 남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녀는 천성적으로 다정다감하고 감정도 풍부했다. 인근 마을 농민들은 그녀의 예쁜 외모만 볼 뿐 형형한 광채를 발하는 그녀의 내면은 들여다보지 못했다. 그녀는 학교를 다니지 못해 자신이 생각하는 '더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 못내 한탄스러웠다. 유식한 사람들 앞에서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 자신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sup>31)</sup>

劉立本這個漂亮得像花朵一樣的二女子，並不是那種簡單的農村姑娘。他雖然沒有上過學，但感受和理解事物的能力很強，因此精神方面的追求很不平常。加上她天生的多情，形成了她極為豐富的內心世界。村前庄後的庄稼人只看見她外表的美，而不能理解她那絢麗的精神光彩。可惜她自己又沒文化，無法接近她認為“更有意思”的人。她在有文化的人面前，有一種深刻的自卑感。她常在心里怨她父親不供她上學。<sup>32)</sup>

류차오전은 자신이 글을 배우지 못한 것을 한으로 여겨서 많이 배우고 정신적 소양이 풍부한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 아무리 좋은 조건의 혼담이 들어와도 눈에 차지 않던 류차오전이 마음에 든 남자는 바로 같은 마을의 가오자린이었다. 그녀는 가오자린을 좋아하면서도 자괴감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고 몰래 바라봤었지만 자린이 농민으로 돌아오자 용기를 내 고백하고 자린과 연애를 하게 된다.

류차오전은 순수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헌신적이고 순종적인 인물이다. 가오자린이 마을 사람들에게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지 말라고 하면 말하지 않고, 그가 어떤 옷이 예쁘다고 하면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해 그 옷을 입고, 양치를 하라고 하면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개의치 않고 양치를 한다.

하지만 류차오전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양치질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하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자린 오빠가 하라고 했으니까 말이다. 사랑에 빠진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가 기뻐하기만 한다면 그 어떤 일도 용감하게 할 수

31)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49쪽.

32) 『人生』, 39쪽.

있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은 아무렇지 않았다. 자린의 사랑을 위해서라면 뭐든 참아낼 수 있었다.<sup>33)</sup>

劉巧珍根本不管這些議論，她非刷牙不可！因爲這是親愛的加林哥要她這樣做的啊！痴情的姑娘爲了讓心愛的男人喜歡，任何勇氣都能鼓起來。她根本不管世人的譏笑；她爲了加林的愛情什麼都可以忍受。<sup>34)</sup>

또한 그녀는 상대방을 헤아리고 배려할 줄 안다. 늘 가오자린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류차오전은 가오자린이 장날 현성으로 만터우를 팔러 갈 때도 따라갔다가 그가 하나도 팔지 못한 것을 보자 대신 팔아주겠다고 하고는 이모에게 만터우를 가져다준 후 마치 그것을 다 팔아 돈을 번 것처럼 자신의 돈을 그에게 건넨다. 그리고 가오자린이 꺾련을 필요로 할 것도 알고 있어서 미리 준비해둔 담배를 그에게 건네준다. 그가 고된 노동으로 손을 다치고 배고픈 것을 알고는 약과 먹을 것도 챙겨다준다. 가끔씩 가오자린이 혼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그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그가 떠나 버릴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에 결국 일자리를 찾아 밖으로 나가라고 말을 한다.

그날 밤 늙은 참죽나무 아래에서 수심에 가득 찬 자린을 보고 차오전이 먼저 말을 꺼냈다.

“차라리 밖에 나가서 일자리를 찾아봐요! 오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아요! 이렇게 시름에 빠져 있는 걸 보면 나도 오빠에게 떠나라고 하고 싶어요!”

자린이 차오전의 어깨를 두 손으로 붙잡고 한참 동안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사랑스러운 사람! 그녀는 언제부터 그의 생각을 알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

한참 동안 바라보고만 있던 자린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떠나면 널 버릴까 봐 무섭지 않아?”

“안 무서워요. 오빠가 마음대로 살 수만 있다면 난…….”

그녀가 와락 눈물을 터뜨리며 폴에 달라붙은 새삼 씨처럼 그를 꼭 끌어안았다.

“날 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sup>35)</sup>

這一天晚上，還是在那棵老椿樹下，當她看見加林還是那麼愁眉苦臉時，就主動對他說：

“加林哥，你干脆想辦法去工作去！我知道你的心思！看把你愁成啥了！我很想叫你出

33)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68-69쪽.

34) 『人生』, 56쪽.

35)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130-131쪽.

去!”

加林兩只手抓住她的肩頭，長久地看着她的臉。親愛的人！她在什麼時候都了解他的心思，也理解他的心思。

他看了她老半天，才開玩笑說：“你叫我出去，不怕我不要你了嗎？”

“不怕。只要你活得暢快，我……”她一下子哭了，緊緊抱住他，像菟絲子纏在草上一般，說，“你什麼時候也甭把我丟下……”<sup>36)</sup>

류차오전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오자린만 행복하다면 농촌을 떠나 재능을 펼치길 바라면서도 자신이 버려지는 것은 두려워한다. 그래서 가오자린이 정말로 일자리를 구해 현성으로 가게 되자 그녀는 자신을 자주 생각하고 자신만 좋아해달라고 말하면서 배웅을 한다. 하지만 류차오전은 가오자린과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스물두 살 인생에 가장 큰 좌절을 겪게 된다. 어느 날 현성에 있는 가오자린이 류차오전을 불러내 더 멀리 가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그녀는 곧 그 말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떠나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그렇게 자린에게 버림받고 그와 결혼하고 싶어 했던 자신의 꿈이 좌절되면서 류차오전은 식음을 전폐하고 힘들어한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로 생각하며 다시 노동을 시작한다.

강인한 여자였다!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지도 않았고 실성하지도 않았다. 인생의 재난이 그녀를 쓰러뜨렸지만 다시 일어났다! 그녀의 불행을 고소하게 여겼던 사람들도 그녀의 강인함에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들이 흘끔거리며 그녀를 살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그녀가 부쩍 야위었다는 것이었다!

왜 안 그렇겠는가? 그녀는 보름동안 거의 밥을 목으로 넘길 수가 없었고 길게 자지도 못했다. 날마다 한밤중에 이불 속에서 몰래 울었다. 자신의 불행에 울고, 고된 운명에 한탄하고, 찢겨버린 사랑의 꿈을 안타까워했다!

죽음을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스무 해 넘게 살아온 대지와 산천을 바라보고, 자신의 땀으로 키운 푸른 곡식들을 들여다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짝 사라졌다. 그녀는 이 세상을 사랑했다. 태양을 사랑하고 대지를 사랑하고 노동을 사랑했으며 투명한 다마허와 다마허 기슭의 푸른 풀과 들꽃들을 사랑했다……. 죽을 수 없었다! 꼭 살아야 했다! 일해야 했다!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을 바로 이 땅에서 찾아야 했다!<sup>37)</sup>

剛強的姑娘！她既沒尋短見，也沒神經失常；人生的災難打倒了她，但她又從地上

36) 『人生』, 109쪽.

37)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41쪽.

爬起來了! 就連那些曾對她的不幸災樂禍的人, 也不得不在內心里對她肅然起敬!

所有的人都對她察言觀色。普遍的印象是: 她瘦多了!

她能不瘦嗎? 半个月來, 她很少能咽下去飯, 也很難睡上一個熟覺。每天夜半更深, 她就一個人在被窩里偷偷地哭; 哭她的不幸, 哭她的苦命, 哭她那被埋葬了的愛情夢想!

她曾想到過死。但當她一看見生活和勞動過二十多年的大地山川, 看見土地上她用汗水澆綠的禾苗, 這種念頭就頓時消散得一干二淨。她留戀這個世界; 她愛太陽, 愛土地, 愛勞動, 愛清朗朗的大馬河, 愛大馬河畔的青草和野花……她不能死! 她應該活下去! 她要勞動! 她要在土地上尋找別的地方找不到的東西!<sup>38)</sup>

그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대로 살아가기로 한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에게 계속 혼담을 넣어왔고 가오자린과 헤어진 걸 알고도 다시 찾아온 마환과 결혼을 하기로 결심한다.

처녀 시절이 스물두 살에 이렇게 끝날 줄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제 그녀는 한 남자와 함께 평생을 살아야 한다. 자기 운명이 마환과 엮일 거라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은 가오자린이었다! 자린 때문에 울고 자린 때문에 웃었으며 그의 꿈을 수없이 꾸었다. 하지만 이제 꿈에서 깬 시간이다……<sup>39)</sup>

她想不到, 二十二年的姑娘生活, 就這樣結束; 她從此就要跟一個男人一塊生活一輩子了。她絕沒有想到, 她把自己的命運和馬拴結合在一起; 她心愛過的人是高加林! 她爲他哭過, 爲他笑過, 做過無數次關於他的夢。現在, 夢已經做完了……<sup>40)</sup>

비록 가오자린이 자신과의 사랑을 저버렸지만 류차오전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어서 그를 미워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들은 그녀는 언니와 함께 가오밍러우를 찾아가 가오자린이 다시 교사 일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위와 같이 류차오전은 사람을 사랑하고 대지를 사랑하는 순수한 농민이면서, 지고지순한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해 좌절을 겪은 후에도 스스로 다시 일어서는 강인한 여인이다. 그리고 자신을 버린 옛 연인이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오와도 그를 외면하지 않고 재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선량한 인간애를 지닌 인물이다.

38) 『人生』, 204쪽.

39)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49-250쪽.

40) 『人生』, 211쪽.

### 3. 현대적인 도시 여인 黃亞萍

황야핑은 장쑤(江蘇) 출신의 남부 도시 여인이며, 아버지의 발령을 따라 이사를 와서 가오자린과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현재 현성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외모에서부터 도시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학생 시절 가냘팠던 몸매가 제법 풍만해져 있었다. 얼굴은 거의 달라진 게 없지만 남부 여자들의 특징인 붓으로 그린 듯 구불한 눈썹이 더 도드라져 보였다. 참신한 디자인의 연분홍 반소매 상의에 아이보리색 바지를 입고 중간 굵의 갈색 샌들을 신고 있었다. 단번에 가오자린의 눈에 들어온 이 모든 게 황야핑을 보자마자 느낀 인상이었다.<sup>41)</sup>

她已不像學校時那麼纖弱，變得丰滿了。臉似乎沒什麼變化，不過南方姑娘的特点更加顯著：兩道彎彎的眉毛像筆畫出來似的。上身是一件式樣新穎的薄薄的淡水紅短袖，下身是乳白色筒褲，半高跟赭色皮涼鞋——這些都是高加林一瞥之中的印象。<sup>42)</sup>

황야핑은 자신의 외모에 자신이 있고 영리하며 좋은 집안 환경을 가졌다. 그녀는 고등학교 동창 장커난과 사귀고 있었는데, 기자가 된 가오자린을 만난 후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건 가오자린이라는 걸 깨닫는다.

황야핑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인물이다. 가오자린에 대한 마음을 확신한 그녀는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었다. 그래서 부모님과 사회가 그녀의 선택을 의리 없고 부도덕한 짓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장커난과 헤어지기로 결심한다.

야핑은 이 현성에서 몇 안되는 ‘현대 청년’이었다. 그녀는 개인의 행복 추구는 인간의 권리이자 자유라고 생각했다. “나는 바로 나 자신의 것”이므로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간섭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부모님도 포함해서 말이다. 부모님은 장인장모의 관점에서 사윗감을 바라보지만 자신은 사랑을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커난과 연인 관계이기는 하지만 설령 이미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마찬가지로

41)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181쪽.

42) 『人生』, 151-152쪽.

로 이혼을 선택할 것이다!43)

在這個縣城里，黃亞萍可以算得上少數几个“現代青年”之一。在她看來，追求个人幸福是一个人的權利和自由，“我是我自己的”，誰也沒權力干涉她的追求，包括至親至愛的父親；他們只是從岳父岳母的角度看女婿，而她應該是從愛情的角度看愛人。別說是她和克南現在還是戀愛關係；就是已經結婚了，她發現她實際上愛另外一个人，她也要和他离婚!44)

결국 황야핑은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커난과 이별하고 가오자린에게 고백을 해 사귀게 된다.

황야핑의 성격은 자유분방하면서 제멋대로이기도 하다. 연애할 때도 그녀는 류차오전과는 달리 상대방이 자신에게 복종하길 원한다. 그런 성격 때문에 때로는 쓸데없는 행동을 하여 가오자린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기도 한다. 비가 많이 오는 어느 날 황야핑은 회의 중인 자린에게 전화를 걸어 전날 잃어버린 과도를 찾아달라고 한다. 가오자린이 바빠서 휴식시간에 다녀온다고 하자 그녀는 자신을 위해 그것도 못해준다면 원망을 하고, 가오자린은 짜증나면서도 회의를 빠져나와 비를 맞으며 과도를 찾아다니지만 찾을 수가 없다. 가오자린이 빈손으로 황야핑에게 가니 과도는 그녀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야핑이 깔깔 웃으며 호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는 것이었다.

자린이 물었다.

“찾았어?”

“사실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 내가 장난치려고 거짓말한 거야. 내가 내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시험도 할 겸! 화내지 마. 낭만을 느껴보려고 그랬어…….”

“젠장! 시답잖은 소리 집어치워!”

자린이 성을 내며 거친 욕을 쏟아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가 몸을 휙 돌려 밖으로 나갔다.

야핑은 그제야 자신의 장난이 너무 심했다는 걸 알았다. 당황해 어쩔 줄 모르고 방에서 혼자 울음을 터뜨렸다.45)

亞萍突然咯咯地笑了，從衣袋里掏出了那把刀子。

“找見了？”加林問。

“原來就沒丟！我故意和你開個玩笑，看你對我的話能聽到什麼程度！你別生氣，我是即興地浪漫一下……”

43)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05쪽.

44) 『人生』, 172-173쪽.

45)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35쪽.

“混蛋! 陳詞濫調!” 高加林憤怒地罵着, 嘴唇直哆嗦。他很快轉過身就走了。

黃亞萍這下才知道她的惡作劇太過分了, 嚇得不知如何是好, 一個人在房子里哭了起來。46)

황야핑의 이런 행동은 지나치기는 하지만 다 가오자린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황야핑의 사랑은 물질적으로 아낌없이 베푸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물론 그것도 그녀의 취향대로 가오자린을 꾸미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녀 나름대로의 희생이었다.

그녀의 월급은 전부 그를 위해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계절마다 유행하는 옷을 사주고 인편에 부탁해 베이징에서 캡토슈즈를 사오기도 했다(그는 아직 신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평소에도 통조림, 케이크, 고급 밀크캔디, 커피, 코코아, 맥아분 유 등을 수시로 사다주었다. 현위원회 서기도 자주 먹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그녀는 또 날짜가 표시되는 자신의 수입산 전자동 손목시계를 그에게 주고 자신은 그의 상하이표 시계를 샀다. 물질적인 것이라면 뭐든지 다 희생할 수 있었다…….47)

她的工資几乎全花在了他身上; 給他買了春夏秋冬各式各樣的時興服裝, 還托人在北京買了一雙三接頭皮鞋(他還沒敢穿)。平時, 罐頭、糕點、高級牛奶糖、咖啡、可可粉、麥乳精, 不斷頭地給他送來——這些東西連縣委書記恐怕也不常吃。她還把自己進口帶日歷全自動手表給了他; 她自己却戴他的上海牌表。這些方面, 亞萍是完全可以做出犧牲的…….48)

그리고 그녀는 가오자린에게 더 큰 도시로 나아갈 기회를 준다. 가족과 같이 난징으로 가면서 가오자린도 함께 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황야핑의 인생은 그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가오자린이 뒷문으로 현위원회 통신간사 자리에 들어온 것이 발각되어 그가 농민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가오자린과 함께 있고 싶으면서도 그가 농민이 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 모순 속에 갈등하고 괴로워한다.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녀도 이렇게 괴롭지는 않을 것이다. 그녀가 자린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린이 지옥에 떨어져도 그녀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반대로 그녀가 오로지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개의치 않는다면 자린이 지옥에 빠

46) 『人生』, 198쪽.

47)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36쪽.

48) 『人生』, 199쪽.

지면 그녀도 그를 따라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모순은 해결 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자린을 사랑하는 것과 자린이 농민이 되길 바라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했다!<sup>49)</sup>

如果有一个方面的堅定選擇，她也就不會如此痛苦了：假若她不去愛高加林，那高加林就是下了地獄也與她無干；如果她爲了愛情什麼也不顧，那高加林就是下地獄她也會跟着下去!

矛盾是无法統一的。兩個方面她自己認爲都很重要：她愛高加林而又怕他當農民啊!<sup>50)</sup>

현실을 인정한 가오자린이 그녀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황야핑은 농촌에 따라가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가오자린을 사랑해도 곱게 자라고 제멋대로인 그녀가 농촌 일을 견딜 수는 없을 것이다. 그녀 자신도 그걸 모르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 그런데 가오자린이 류차오전을 더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털어놓자 황야핑은 충격을 받는다. 절망한 황야핑은 결국 가오자린을 놓아준다. 영리하고 집안환경도 좋은 황야핑의 인생은 굴곡 없이 흘러갈 것 같았지만 현실은 그녀에게도 좌절을 맛보게 만든다.

#### 4. 낭만적인 낙관주의자 德順

더순(德順)은 가오자촌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노인이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농사를 지으면서 살지만 대지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좋아하며 삶에 대해 낙관적인 인물이다. 작가는 「答中央廣播電視大學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처음에는 더순 영감이라는 인물을 중시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는 그가 작품에서 빛을 발하는 인물이 되었다. 더순 영감이 작품의 결말에서 하는 말은, 비록 내가 잘 쓰지는 못했지만 조금 ‘교양있게’ 썼는데, 더 ‘촌스럽게’ 썼어야 했다. 나도 『人生』의 마지막에 그가 ‘주제’를 요약할 줄은 몰랐는데 매우 놀라웠다.

開頭我沒有重視德順老漢這個人物，但最后他成了作品的一个很有光彩的人物。德順老漢在作品結尾說的那段話，盡管我還沒有寫好——寫得“文”了一些，應該再“土”一些，但

49)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59쪽.

50) 『人生』, 220쪽.

是我沒想到《人生》最后竟然由他來点“題”，這是使我很驚訝的。51)

이처럼 더순이라는 인물은 비록 주요 인물들에 비해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작품 속에서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직접 출연하는 장면은 전체 23장 중 6장이 되어서야 나오지만, 그전에 2장에서 더순 영감이 심은 복숭아나무를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대략적으로 알려준다. 가오자린이 강가에서 수영을 한 후 나무 아래 드리누워 쉬다가 류차오전을 마주치는데 그 나무가 바로 더순 영감이 심어놓은 복숭아나무이다.

그 복숭아 나무는 평생 홀아비로 사는 더순 영감이 심은 것이다. 마음씨 좋은 영감이 복숭아가 다 익기 전에 전부 따서 마을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지금은 잎사귀만 남아 있었다. 잎사귀가 무성하지는 않지만 선선한 그늘을 드리울 정도는 되었다.52)

這棵桃樹是一輩子打光棍的德順老漢的。桃子還沒熟的時候，好心的老光棍就全摘了分給村里的娃娃。現在這樹上只留下一些不很茂密的樹葉，倒也能遮一些蔭涼。53)

더순 영감의 복숭아나무는 마을 아이들에게 열매를 주고, 열매가 없을 때는 그늘이 되어준다. 이와 같은 복숭아나무의 이미지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더순 영감을 닮아 있다. 더순은 비록 자식은 없지만 아이들을 좋아하는데, 특히 가오자린은 어릴 적부터 봐왔기 때문에 매우 아끼고 있다.

한평생을 홀아비로 산 더순 영감은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다. 마을 아이들을 좋아해서 맛있는 게 있으면 아까워서 먹지 못하고 온 마을을 돌며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곤 했다. 특히 자린에게는 더 애뜻한 정이 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자린은 소학교에 다닐 때 이따금 연필 한 자루 살 돈도 없었다. 그걸 아는 더순 영감이 자린을 볼 때마다 3마오, 5마오씩 쥐어주곤 했다. 자린이 중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더순 영감은 현성으로 농작물을 팔러갈 때마다 절반쯤 남겨서 자린의 학교로 가져다주었다.54)

德順老漢一輩子打光棍，有一顆極其善良的心。他愛村里的每一個娃娃。有一點好東西，自己舍不得吃，滿庄轉着給娃娃們手里塞。尤其是加林，他對這孩子充滿了感情。小時候加林上學，家境不好，有時連買一支鉛筆的錢都沒有，他三毛五毛的常給他。加林在

51) 『早晨從中午開始』, 213쪽.

52)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7쪽.

53) 『人生』, 20쪽.

54)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77쪽.

中學上學時，他去縣城里賣瓜賣果，常留半筐子給他提到學校里。55)

더순은 이렇게 자신이 아끼는 가오자린이 처음 농사일을 하면서 쉬지 않고 곡괭이질을 하며 물집이 터지고 피가 흐르도록 자신을 혹사시키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한다. 그는 가오자린의 손을 황토로 지혈을 해주며 노동을 할 때는 힘을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타이르지만 가오자린은 고집을 꺾지 않고 다시 곡괭이를 잡고 땅을 판다. 더순은 고집스런 그를 보며 한숨을 쉬면서도 더운 날씨에 익숙하지 않은 가오자린이 걱정되어 마실 물을 주고난 후 자신의 밭으로 간다.

더순은 또 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는 고지식한 다른 농촌 노인들과는 달리 자유연애를 망측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오자린과 류차오전이 연애하는 것을 알고 두 젊은이의 순수한 사랑을 응원한다. 전통적인 농촌 노인의 사고를 가진 가오자린의 아버지는 아들이 차오전과 연애한다는 소문이 퍼진 것을 알고 걱정하지만, 더순은 젊은이들끼리 좋아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며 가오자린의 편을 들어준다. 또한 현성에 인분을 가지러 갈 때도 노동에 익숙하지 않은 가오자린을 일부러 동행하게 하고, 밥을 짓기 위해 따라가는 차오전과 함께 뒷수레에 앉으라고 한다.

더순도 젊었을 때 연애를 한 적이 있다. 현성으로 가는 수레에서 더순은 자린과 차오전이 결혼하지 않은 그의 연애사를 궁금해 하자 자신의 젊었을 적 이야기를 들려준다. 더순은 이십대에 가축을 끌고 만리장성 북쪽으로 소금과 가축을 실어 나르면서 우딩허(无定河) 옆 휴게점의 딸 링촐과 사귀었다. 링촐은 더순이 휴게점에 도착할 즈음 신천유56)를 부르며 맞이했고,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더순이 떠날 때면 눈물로 배웅하며 신천유를 불렀다. 더순은 그때를 회상하며 신천유를 부르다 훌쩍인다.

“영감님, 링촐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차오전이 자린의 가슴팍에 기대는 채 앞 수레에서 상심에 빠져있는 영감에게 물었다.

더순 영감의 입에서 한숨이 비어져 나왔다.

55) 『人生』, 62쪽.

56) 중국 서북부 민가의 한 형식.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8쪽.

“나중에 텐진(天津) 상인에게 시집갔어. 링관은 안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억지로 데려가게 했지……. 텐진은 여기서 세상 끝이나 마찬가지잖아! 그 후로는 한 번도 못 만났지! 내 평생 결혼도 하지 않았고. 마음에도 없는 여자랑 결혼하는 건 멍멍하고 재미가 없어. 냉수 마시는 거랑 다를 게 뭐야?”

차오전이 말했다.

“링관이 아직 살아 있을 거 같아요?”

“내가 죽기 전엔 살아 있지! 내 평생 그 여자를 가슴속에 담아뒀으니까…….”<sup>57)</sup>

“德順爺，靈轉後來干啥去了?” 巧珍貼着加林的胸脯，問前面車子上黯然神傷的老漢。

德順老漢嘆了一口氣：“後來，聽說她讓天津一個買賣人娶走了。她不依，她老子硬讓人家引走了……天津啊，那是到了天盡頭了！從此，我就再也沒見我那心上的人兒！我一輩子也就再不娶媳婦了。唉，娶個不稱心的老婆，就像喝涼水一樣，寡淡無味……”

巧珍說：“說不定靈轉現在還活着?”

“我死不了，她就活着！她一輩子都揣在我心裡……”<sup>58)</sup>

이를 보면 더순이 평생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가 있다. 그는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기에 옛 사랑을 아직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며, 그의 결혼관도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과 억지로 결혼을 하지도 않았다. 자신이 그런 사랑을 해봤기 때문에 더순은 자린과 차오전의 연애를 응원하고 옹호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현성으로 간 자린이 차오전을 버리자 더순은 자린의 아버지와 함께 찾아가 사랑을 저버리고 도의를 저버린 그를 꾸짖지만 자린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차오전이 결국 마완과 결혼을 하게 되자 더순은 이를 매우 안타까워하며 그녀의 결혼식 날은 집밖으로 나오지도 않는다.

마을에서 유독 한 사람만 집 밖에 나오지 않았다. 바로 더순 영감이었다.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늙은 할아버지는 구들의 돛자리 위에 누워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차오전의 불행에 가슴이 아프고 사랑을 배신한 자린 때문에 괴로웠다. <sup>59)</sup>

全村只有一个人躺在自己家里沒出門。這就是德順老漢。重感情的老光棍此刻躺在土炕的光席片上，老泪止不住地流。他為巧珍的不幸傷心，也為加林的負情而難過。 <sup>60)</sup>

57)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140-141쪽.

58) 『人生』, 117쪽.

59)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47쪽.

60) 『人生』, 209쪽.

더순은 낭만적이면서도 낙관주의적인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작가는 더순이라는 인물을 쓰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한다.

『人生』의 더순 영감은 내가 아끼는 인물인데, 내 상상속의 그는 낭만적인 색채를 띄고 있다. 아이트마토프<sup>61)</sup>의 소설 속 장면처럼 달빛 아래 마차를 몰면서 오래된 가요를 부르며 흔들흔들 광활한 대초원을 달리는……。 작품 속에서 그가 등장할 때 나는 그를 잘 써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현성에 인분을 가지러 가는 부분까지 썼을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더 이상 그를 써내려갈 수가 없었다. 다른 인물들은 내 펜 아래서 움직이며 그들을 써주길 기다리고 있었지만 더순 영감만은 써내려갈 수가 없었는데, 그가 여기에서 표현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매우 고통스럽게 하루를 견뎠고, 그때 노동자의 토지와 생활과 인생에 대한 낙관주의적인 태도를 생각하게 됐다.

譬如《人生》中德順老漢這個人物，我是很愛他的，我想象中他應該是帶有浪漫色彩的，就像艾特瑪托夫小說中寫的那樣一種情景：在月光下，他趕着馬車，唱着老的歌謠，搖搖晃晃地駛過遼闊的大草原……在作品中他登場的時候，我並沒有想到能把他寫得比較好，寫到去城里掏大糞前，我感到很痛苦，沒有辦法把他寫下去。盡管其他人物都跳動在我筆下等着我寫他們，但德順老漢我寫不下去，我總覺得他在這裏應該有所表現。我非常痛苦地攔了一天。這時，我感到了勞動人民對土地，對生活，對人生的那種樂觀主義態度。<sup>62)</sup>

작가의 말처럼 더순은 인생에 대해 낙관주의적인 태도를 지닌다. 그는 비록 사랑의 좌절을 경험했지만 절망에 빠지지 않았고, 대지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고독할 수도 있는 삶을 적극적이고 낙관적으로 살아간다. 그의 인생 경험이 그를 감상적이고 철학적이게 만들었고, 소소한 대지의 삶에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다.

사랑의 좌절은 더순 영감을 의기소침하게 만들거나 절망에 빠지게 하지 않았다. 그가 간직하고 있던 것은 사랑 뒤의 슬프고 고독한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그는 링짖을 ‘가슴 속에 담아둔다’는 다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로 고독하고 기나긴 인생을 대면한다. 더순의 일생은 곡절이 복잡하며, 풍부한 경력과 축적된 경험은 그가 인생에 대해 감성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인식을 가지게 만들었다…….

愛情的毀滅並沒有使德順老漢陷入到消沉和絕望中。他保留的不是愛情之后的憂傷孤獨

61) 친키즈 아이트마토프(1928-2008)는 키르키즈스탄 작가이며 주요 작품으로 『하얀 배』 등이 있다.

62) 『早晨從中午開始』, 213쪽.

의感覺, 而是愛得最美的那一剎。他帶着對靈轉的“揣在我心里”的承諾, 以積極樂觀的態度面對着孤單漫長的人生。德順的一生曲折冥雜, 閱歷的丰富和經驗的積累使他對“人生”有着感性而富于哲理的認識……63)

이런 낙관적인 태도 때문에 더순은 고루함과 보수성을 지닌 전통적 노인과는 달리 이해와 관용의 태도를 가지고 젊은이들을 대한다. 마지막에 가오자린이 해임되어 다시 농촌으로 돌아왔을 때 크게 상심하고 괴로워하는 가오자린에게 더순은 자신이 생각하는 삶과 행복에 대해 말하면서 그가 무너지지 않도록 조언한다.

“쓸데없는 소리! 스물네 살밖에 안 된 놈이 그런 허튼 생각을 해? 네 말 대로면 난 진즉에 뉘졌어야지! 나는 일흔이 코앞인데 자식도 없고 한평생 홀아비로 살았어. 그런데도 아직도 가슴이 뜨겁고 몇 년이라도 더 살고 싶어! 나도 이런데 새파랗게 젊은 놈은 말해서 뭐해! 난 처자식도 없지만 사는 게 재미있다. 사랑도 해봤고 고통도 겪어봤어. 내 손으로 노동을 해보고 오곡을 길러보고 나무도 심고 길도 깔았지……. 이게 다 사는 재미가 아니고 뭐야? 젊은 애들 말로 행복 말이야, 행복! 넌 몰라. 과일을 따서 마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안 그러냐? 너 어릴 적부터 내가 따주는 과일을 얼마나 많이 먹었어? 내가 나무를 심을 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넌 몰라. 내가 죽어도 후손들이 이 나무에 열린 과일을 따 먹으며 오래전 마을에 살았던 더순 영감이라는 홀아비가 심은 나무라고 말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무를 심어…….”64)

“胡說!” 德順爺爺一下子站起來, “你才二十四歲, 怎麼能有這麼些混帳想法? 如果按你這麼說, 我早該死了! 我, 快七十歲的孤老頭子了, 无儿无女, 一輩子光棍一條。但我還天天心里熱騰騰的, 想多活它几年! 別說你還是個嫩娃娃哩! 我雖然沒有妻室儿女, 但覺得活着總還是有意思的。我愛過, 也痛苦過; 我用這兩只手勞動過, 種過五谷, 栽過樹, 修過路……這些難道也不是活得有意思嗎?——拿你們年輕人的詞說叫幸福。幸福! 你小子不知道, 我把我樹上的果子摘了分給村里的娃娃們, 我心里可有多……幸福! 不是么, 你小時候也吃過我的多少果子啊! 你小子還不知道, 我栽下一撥樹, 心里就想, 我死了, 後世人在那樹上摘着吃果子, 他們就會說, 這是以前村里的光棍老漢德順栽下的…….”65)

더순은 또 자린에게 농촌을 무시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고 한다.

63) 劉成勇, 「『人生』中德順老漢的形象分析」, 『新余學院學報』, 2014, 49쪽.

64)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88쪽.

65) 『人生』, 246-247쪽.

“이 산, 이 물, 이 땅이 대대손손 우리를 기른 거야. 이 땅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암! 아무것도 없고말고! 일을 하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거야. 요즘 당의 정책이 좋아져서 하루하루 살기 좋아지고 있어. 농촌도 앞으로 크게 발전할 거야. 널 실망시키진 않을 게다! 낙심할 거 없어! 사내대장부는 넘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넘어졌다가 일어나지 못하면 죽은 개 신세가 되는 거야…….”<sup>66)</sup>

“就是這山，這水，這土地，一代一代養活了我們。沒有這土地，世界上就什麼也不會有！是的，不會有！只要咱們愛勞動，一切都還會好起來的。再說，而今黨的政策也對頭了，現在生活一天天往好變。咱農村往后的前程大着哩，屈不了你的才！娃娃，你不要灰心！一個男子漢，不怕跌跤，就怕跌倒了不往起爬，那就變成個死狗了……”<sup>67)</sup>

더순은 비록 누더기 옷을 걸친 늙은 홀아비 농사꾼이지만 자린에게 심오한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 이와 같은 더순의 말을 빌려 작가는 가오자린과 같은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으며, 작품의 전체 주제를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더순은 앞의 세 명의 주요 인물들에 비하면 비중이 작아 보이지만 그 역할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66)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89쪽.

67) 『人生』, 247-248쪽.

## IV. 주제 분석

### 1. 가오자린의 도시 상상

#### 1) 도시의 사전적 의미

소설 『人生』의 주인공 가오자린은 도시와 농촌의 교차지대에서 방황하며 도시로 진출해 성공하길 바라는 지식청년이다. 그가 계속 도시를 갈망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우선 도시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당시 중국의 도시와 농촌의 상황을 살펴보자.

일반적인 의미의 도시란 “농촌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고, 2·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으며 인공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중심이 되는 곳”<sup>68)</sup>이다. 즉 도시는 인구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1차 산업인 농업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며 다양한 직업군이 있고, 문화시설과 의료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고 공공기관이 모여 있는 행정상으로도 중심이 되는 곳이다. 그러므로 도시에서는 생활용품을 비롯한 가공품을 구하기 쉬우며, 직업이 다양한 만큼 직업 선택의 폭이 넓고, 각종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농촌보다 나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작품의 배경이 되는 당시 중국의 도시와 농촌은 어떤 상황이었기에 가오자린이 도시로 나가고 싶어 했을까? “사회 문명의 발전과 변천은 항상 ‘대도시’ ‘소도시’로부터 시골로 파급된다.”<sup>69)</sup> 개혁을 시작한 중국의 도시에서는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서구 문화와 상품이 도입되면서 생활이나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농촌에는 현대 문명의 손길이 느리게 닿았고, 상품 경제 관념과 현대적인 의식이 낙후된 농촌에 퍼질 때마다 전통적인 관념과 충돌을 일으키며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었다.

68)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알기 쉬운 도시이야기』, 파주, 한울, 2006, 11쪽.

69) 陳思和, 노정은 박난영 옮김, 『중국당대문학사』, 파주, 문학동네, 2008, 329쪽.

## 2) 농촌의 실상

당시 도시와 농촌은 여러 방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도시에서는 물품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농촌에서는 자급해서 쓸 수 있는 생산물 외에는 도시로 나가야 물건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공품은 대부분 도시에서 농촌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이다. 가오자린이 현성의 장에 갔을 때 버스터미널 대합실 앞에서 만난 고등학교 동창 장커난은 부식매장 주인이었는데, 술과 담배 등의 물건을 구하기 어려울 때는 자신에게 부탁하면 도와줄 수 있다고 자린에게 말하면서 요즘 시골 사람들은 물건을 구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장커난은 그때 회사에서 쓸 컬러텔레비전을 사러 베이징으로 가는 중이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외진 농촌에서는 술과 껌 등을 비롯한 물건들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현성으로 가야했고, 소도시라고 할 수 있는 현성에서도 최신식 제품인 컬러텔레비전과 같은 것을 사려면 대도시까지 가야 했음을 알 수 있다.

물품 구입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에서도 도시와 농촌에는 차이가 났다. 현성에는 영화관과 운동장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만 농촌에는 산천초목이 있을 뿐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 별도로 마련된 공간이 없었다. 가오자린은 매일 신문을 보는 습관이 있었지만 교사를 그만두고 농촌으로 가서는 한참동안 신문을 보지 못했는데, 현성의 장에 갔을 때 현문화관의 열람실에 들어가서야 오랜만에 신문을 읽는다. 이처럼 농촌에는 변변한 문화시설이 없어서 도시와 차이를 보인다.

농촌의 낙후된 면을 보여주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위생관념이었다. 류차오전은 사랑하는 가오자린이 양치를 하라고 당부했기 때문에 집 앞에서 양치질을 한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구경을 한다.

마을 사람들에게 양치질이란 간부나 학자들이 폼 잡고 하는 일이었다. 촌뜨기 농민들 중에 누가 양치질을 한단 말인가? 가오자린도 이를 닦고 가오싼성도 이를 닦고, 차오전의 여동생 차오링도 이를 닦지만 그들이 이를 닦는 것은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인민공사의 일개 사원인 까막눈 처녀 차오전이 이를 닦는 것은 누가 봐도 신기하고 낯선 일이었다.<sup>70)</sup>

在村民們看來，刷牙是干部和讀書人的派勢，土包子老百姓誰還講究這？高加林刷牙，高三星刷牙，巧珍的妹妹巧玲刷牙，大家誰也不奇怪，唯獨不識字的女社員劉巧珍刷牙，大家感到又新奇又不習慣。<sup>71)</sup>

70)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68쪽.

생각이 고루하고 현대문명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새로운 풍경에 여러 가지 말들을 한다. 심지어 차오전의 아버지인 류리변조차도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양치하는 그녀를 혼내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말라고 하면서 이가 튼튼한 것은 이를 닦는 것과 상관이 없다고 한다. 또 다른 위생문제로는 식수 문제가 있었다. 당시 농촌에는 변변한 상수도 시설이 없는 곳이 많았으며 가오자촌에서도 우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자린은 물을 뜨러 갔다가 더러운 우물물을 보고 심란해져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 표백분을 사다가 뿌린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자린이 가루세제 혹은 약을 뿌려놔 물을 못 쓰게 만들었다고 오해를 하고, 자린과 함께 우물을 정화하는데 동참했던 젊은이들이 해명을 해보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욕을 한다.

“이 얼간이들아! 그 미친놈이 죽으면 따라 죽을 거야?”

“너희들 엄마가 언제 깨끗한 걸 따졌어? 그렇게 낳았어도 너희들이 팔이 없어, 다리가 없어?”

“헛똑똑이들아! 용왕님이 노하셨다! 수맥을 끊었으니 네놈들은 오줌이나 마셔!”

자린의 위생 혁명을 지지하는 몇몇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고 욕을 하든 물을 길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아버지가 그 물을 뽕땅 마당에 쏟아버렸다.<sup>72)</sup>

“你几个瞎眼小子，跟上瘋子揚黃塵哩!”

“你媽不講衛生，生養得你缺胳膊了還是少腿了?”

“胡成精哩! 把龍王爺惹惱了，水脉一斷，你們喝尿去吧!”

那几个擁護加林這次衛生革命的人，不管衆人怎罵，都舀了水，担回家去了；但他們的父親立刻把他們担回的水，都倒在了院子里。<sup>73)</sup>

우매한 마을 사람들은 과학이니 위생이니 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일은 마을 서기인 가오밍러우가 나서서 직접 우물물을 마셔 실천으로 증명한 후에야 진정이 된다. 이와 같은 위생관념에서 알 수 있듯이 농촌 사람들은 원래 살아오던 삶을 그대로 답습하며 폐쇄적이고 낙후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 살다보니 고루한 생각을 쉽게 바꾸지 못하고, 연애관과 결혼관에도

71) 『人生』, 55쪽.

72)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125쪽.

73) 『人生』, 104쪽.

낡고 전통적인 농촌의 사고방식이 남아있었다. 가오자린과 류차오전에 대한 소문이 나자 류리번은 가오위더를 찾아가 가오자린이 자신의 딸을 꼬여내어 밖으로 다니는 바람에 온 마을에 소문이 퍼졌다고 화를 낸다. 전형적인 전통 농민인 가오위더는 아들의 앞날을 걱정하며 심각하게 고민한다.

중매결혼을 선호하는 농촌에서 아들이 남사스런 일을 저질렀으니 이 무슨 망신이란 말인가! 이런 소문이 돌면 마을에서 고약한 꼴을 당하기 십상이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차오전은 이 천도의 십수 가구를 통틀어 제일 훌륭한 처녀이다 이 농촌에서 그런 처녀와 결혼할 수 있다면 자린으로서는 큰 복이다. 하지만 결혼도 풍습을 따라야 할 노릇이 아닌가. 어쨌든 밟아야 할 순서가 있는데 어떻게 한밤중에 들판으로 뛰쳐나갈 수가 있단 말인가. 류리번의 말이 사실이라면 온 마을 사람들이 자린을 부정한 놈으로 보고 있을 것이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안 좋은 소문이 나면 앞으로 하물며 장님이나 절름발이도 시집오려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자린을 알아보는데 아무도 자린과 함께 일을 도모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sup>74)</sup>

鄉里人誰不講究个明媒正娶? 想不到儿子竟然偷雞摸狗, 多讓人敗興啊! 再說, 本村鄰舍, 這号事最容易把人弄臭!

他同時又想: 巧珍倒的确是个体好娃娃, 這川道十几个村子也是數得上的。加林在農村能找這樣一个媳婦, 那真是个他娃娃的福分。但就是要娶, 也應該按鄉俗來嘛, 該走的路都要走到, 怎能黑天半夜到野場地去呢, 如果按立本說的, 全村人現在大概都把加林看成个不正相的人了。可怕啊! 一个人一旦毀了名譽, 將來連个瞎子瘸子媳婦都找不上; 衆人就把他看成个沒人氣的人了。不光小看, 以后誰也不愿和他共事了。<sup>75)</sup>

이처럼 당시 농촌에서는 중매가 보편적이었고, 결혼 약속 없이 남들 앞에서 연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망측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남아있었다. 물론 가오밍러우와 같이 그러한 연애에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타지의 문명을 접한 후 사고방식을 바꾼 것이었다. 가오밍러우는 차오전의 일로 화가 잔뜩 난 류리번에게 젊은이들의 연애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한다.

가오밍러우가 자기 얼굴에 튼 류리번의 침을 닦았다.

“자네는 장사를 하러 도처를 돌아다니면서 생각이 왜 그렇게 구닥다리야? 그런 거 해보지도 않고 들어본 적도 없어? 요즘 젊은이들이 어디 옛날 우리 때 같은가? 자네는 아직 못 본 게 많군! 내가 몇 년 전에 다자이(大寨)에 견학하러 가다가 시안(西

74)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99쪽.

75) 『人生』, 81-82쪽.

安), 타이위안(太原)을 지나면서 도시 젊은이들을 보지 않았겠어? 사람들이 많은 대로변에서 버젓이 팔짱을 끼고 돌아다니더라니까! 처음에는 문명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봐서 습관이 되니까 오히려 그게 문명적인 것 같더군…….”76)

高明樓把劉立本濺在他臉上的唾沫星子揩掉,說:“立本,你整天走州過縣做買賣,思想怎還这么古板?你沒吃過豬肉,連豬哼哼都沒听過?現在的年輕人還像咱們過去那樣嗎?你還沒見的多着哩!我前几年每年都要到大寨參觀一回,路過西安、太原,看見城市的青年男女,在大街上的稠人广衆面前胳膊套胳膊走路哩!開始看見還覺得不文明,后來看慣了才覺得人家那才是文明…….”77)

하지만 다수의 농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도덕관에 얽매어 있었다. 가오자린은 그런 고루한 도덕관과 저속한 여론에 도전하듯이 현성에 표백분을 사러 갈 때 일부러 보란 듯이 류차오전을 데리고 가기도 한다.

이외에도 아주 중요한 제도적인 문제가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었는데 바로 호구등기제도이다. 중국은 1950년대부터 호구등기제도를 만들어 시행하였고 1958년에는 도시와 농촌의 거주민을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로 나누어 엄격히 구분하면서 실질적으로 농민의 도시 이주를 제한했는데, 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본의 루야오 연구자 야스모토 미노루(安本實)는 농촌과 도시의 호구 차이에는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sup>78)</sup> 호구의 구분을 통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촌 사람이 도시로 나가 살기 위해서는 도시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거나 직장을 구해야 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촌 사람들이 도시에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고, 그래서 인맥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 뒷문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가오자린 같은 지식청년의 경우 대학에 들어가면 도시에서 계속 머무르며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진학에 실패하면 다시 농촌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어느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의 반 학생들 중 아무도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 농촌 호구(戶口)인 졸업생들은 농촌으로 내려가고, 도시 호구인 졸업생들은 모든 연줄을 동원해 직장을 구했다. 야핑은 유창한 표준어 실력으로 현의 방송국에 취직해

76)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113-114쪽.

77) 『人生』, 93-94쪽.

78) 安本實, 陳鳳 譯, 「“交叉地帶”的描寫—評路遙的初期短篇小說」, 『当代文壇』, 2008, 21쪽 참고.

아나운서가 되었고 커난은 부식품 회사의 관리직으로 취직했다. 생활의 변화가 그들의 격차를 크게 벌려놓았다. 사는 곳은 10여 리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실제 삶은 완전히 다른 세상인 듯했다.<sup>79)</sup>

很快，高中畢業了。他們班一个也沒有考上大學。農村戶口的同學都回了農村，城市戶口的紛紛尋門路找工作。亞萍凭她一口高水平的普通話到了縣廣播站，当了播音員。克南在縣副食公司当了保管。生活的變化使他們很快就隔開很遠了，盡管他們相距只有十來里路，但在實際生活中，他們已經是在兩個世界了。<sup>80)</sup>

위와 같은 부분들이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더욱 벌려놓았다. 그래서 농촌에서 태어나고 도시의 생활도 경험했던 가오자린과 같은 청년들은 그 사이의 교차지대에서 갈등하고 방황하게 된 것이다. 가오자린은 아버지처럼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지 않았고, 도시는 그가 자신의 이상을 펼쳐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였다. 그래서 그는 계속 도시를 꿈꾸고, 더 넓은 도시로 나가고 싶어 열심히 공부를 했다. 농촌 호구를 가진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들어간다면 도시에 머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기회이지만 가오자린은 대학 진학에 실패했다. 그러나 다행히 소학교에서 민판교사를 하게 되면서 농사를 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 공부하며 노력할 시간이 주어졌다.

비록 변변찮은 민판교사지만 이 직업은 그에게 희망이었다. 몇 년 후 시험을 봐서 정식 교사로 전환될 수도 있고 그 후에 열심히 노력하면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sup>81)</sup>

雖然這几年当民辦教師，但這個職業對他來說還是充滿希望的。几年以后，通過考試，他或許會轉為正式的國家教師。到那時，他再努力，爭取做他認為更好的工作。<sup>82)</sup>

당시 민판교사는 일정 조건을 채우고 시험을 통과하면 정식 교사가 될 수 있었는데, 그때 가오자린의 상황에서는 이것이 유일하게 자신의 이상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희망이었다. 하지만 가오자린은 가오밍러우의 아들에게 교사 자리를 뺏겨버리고 농민으로 돌아왔다. 그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일자리를 뺏어간 가오밍러우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기 위

79)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40쪽.

80) 『人生』, 31쪽.

81)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13쪽.

82) 『人生』, 7-8쪽.

해서는 농촌을 벗어나야하는데 현실은 도시로 나갈 방도가 없었고,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황토 위의 삶에 적응하는 것이었다. 교사를 못하게 되면서 집안의 경제사정도 나빠지자 그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현성의 장에 만터우를 팔러 가는데, 예전의 말쑥한 모습이 아닌 농민의 모습으로 현성으로 향한다.

그리고 지금 다시 왔다. 깨끗하고 말쑥한 옷차림에 온몸에서 비누향이 풍기고 앞 가슴에는 이 현 최고 학부의 배지를 자랑스럽게 달고 있던, 예전의 그 풋풋했던 소년이 지금은 만터우 광주리를 들고 장터에 나온 시골 농부의 모습 그대로였다.<sup>83)</sup>

現在，他又來了。再不是当年的翩翩少年，衣服整洁而筆挺，滿身的香皂味，胸前驕傲地別着本縣最高學府的校徽。他現在提着蒸饅籠子，是一個普通的趕集的庄稼人了。<sup>84)</sup>

그는 현성의 장에서 만터우는 하나도 팔지 못하고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 자괴감만 느낀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류차오전을 만나게 되고, 그녀가 만터우를 대신 팔아주더니 고백을 해온다. 가오자린은 당황하지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에게 입맞춤을 한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

장에 다녀온 그날부터 그는 차오전에게 충동적으로 했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다. 지금은 사랑 타령이나 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까막눈의 시골 처녀에게 난데없이 그런 행동을 한 것도 자신이 요즘 실의에 빠져 방황하고 있는 탓인 것 같았다. 그날 그의 행동은 평생 농민으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사실 그는 미래에 대한 환상의 불씨를 아직 꺼뜨리지 않고 있었다. 비록 지금은 황토 먼지를 뒤집어쓰고 농민이 되었지만 평생 이렇게 살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그는 아직 젊은 스물네 살이므로 반전을 기다릴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차오전과 인연을 맺는다면 영락없이 땅에 매여 살게 될 것이었다.<sup>85)</sup>

趕集那天以後，他一直非常後悔他對巧珍做出的沖動行爲。他覺得自己目前的處境，根本不是談情說愛的時候。他甚至覺得他匆忙地和一個沒文化的農村姑娘發生這樣的事，簡直是一種墮落和消沉的表現；等於承認自己要一輩子甘心當農民了。其實他內心里那種對自己未來生活的幻想之火，根本沒有熄滅。他現在雖然滿身黃塵當了農民，但總不相信他永遠就是這個樣子。他還年輕，只有二十四歲，有時間等待轉機。要是和巧珍結合在一起，他無疑就要拴在土地上了。<sup>86)</sup>

83)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34쪽.

84) 『人生』, 26쪽.

85)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80쪽.

86) 『人生』, 65쪽.

농촌에 얽매이기 싫은 마음과 류차오전을 보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을 하던 자린은 결국 그녀와 연인이 된다. 가오자린은 류차오전과의 사랑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농촌 생활에 조금씩 적응을 한다. 그는 현실적으로 농촌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 잠시 자신의 이상을 덮어두지만 도시로 가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에 농촌의 낙후성과 폐쇄성이 그를 고민에 빠뜨리면서 다시 도시를 상상하게 만든다.

### 3) 야망의 기탁처

당시 도시 호구를 가진 사람은 식량과 생필품을 살 수 있는 표를 배급받으며 살고 의료비와 퇴직연금의 혜택도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농촌 호구에 비해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직업이 한정되어 있었지만 도시에는 여러 가지 직업이 있었고 그만큼 상류사회로 올라가 성공할 기회도 많았다. 이는 결국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더 벌려놓았고, 도시로 나가야만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다는 인식을 만들어주었다. 또한 이런 차이 때문에 은연중에 농촌을 멸시하는 시선도 있었는데, 이는 가오자린과 같은 농촌 출신 청년들의 자존심과 열등감을 자극해 그들과 대등한 위치에 서고 싶게 만들었다. 그래서 가오자린과 같은 농촌의 지식청년들은 더 높은 곳에 올라 자신의 재능을 펼치기 위해 도시로 나가고자 했으며, 그들에게 도시는 이상을 실현시켜주고 신분 상승을 시켜줄 수 있는 꿈의 공간이었다. 도시의 휘황찬란한 모습은 젊은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여러 가지 시설과 환경들이 그들의 이상을 뒷받침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더더욱 도시로 나가 성공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다.

농촌으로 돌아온 가오자린은 류차오전과 연애를 하면서 대지 위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그의 마음속에 도시를 동경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가끔씩 씩씩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농촌의 낙후된 모습과 고루한 사고방식은 가오자린의 마음을 점점 심란하게 만든다. 류차오전이 자신과 연애한다는 소문 때문에 류리번에게 맞았다는 말을 들은 데다 더러운 우물물까지 본 가오자린은 괴로워하면서 현대 문명의 바람이 아직 닿지 못한 낙후되고 폐쇄된 농촌 상황에 마음이 흔들린다.

그의 마음이 또다시 불안하게 흔들렸다. 농촌에서는 살기 힘들 것 같았다. 하지만 다른 출구는 또 어디에 있던 말인가?

고개를 들고 도랑의 어귀를 응시했다. 우뚝 솟은 커다란 산이 그의 시선을 가로막았다. 이곳의 하늘과 땅은 이토록 좁았다!

눈을 감으니 끝없이 펼쳐진 평원과 변화한 대도시, 기세 좋게 내달리는 기차, 화살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비행기가 생각났다……. 그는 늘 이런 환상으로 정신적인 욕구를 만족시켰다.<sup>87)</sup>

他的心躁動爲安，又覺得他很難在農村待下去了。可是，別的出路又在哪里呢？

他抬起頭，向溝口望出去，大山很快就堵住了視線。天地總是這么的狹窄！

他閉住眼，又由不得想起了無邊無垠的平原，繁華熱鬧的大城市，氣勢磅礴的火車頭，箭一樣升入天空的飛機……他常用這種幻想來滿足自己的精神需要。<sup>88)</sup>

가오자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도시에 대한 환상이 있지만 현실은 낙후된 농촌에 머물고 있어서 그의 고민은 점점 커진다. 그래서 그는 가끔 늦은 밤에 혼자 어두운 마을 어귀에서 생각에 잠긴다.

이따금씩 먼 지평선에서 우릉우릉 울리는 소리가 무거운 정적 사이로 스며들었다. 고개를 들어보면 하늘이 맑아 번개가 친 것도 아닌 듯했다. 아, 저 먼 곳에서 지금 뭐가 울렸을까? 자동차? 기차? 비행기?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소리가 마을을 향해 다고오고 있는 것 같았다. 아름다운 동경과 환상에 잠시나마 피로와 근심을 잊을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입이 조용히 가늘게 벌어졌다. 귀와 눈으로 멀리서 다가오는 소리를 찾기 시작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자 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그게 자신의 환각이라는 걸 깨닫고 가만히 한숨을 쉬며 다시 눈을 감고 나무에 몸을 기댔다.<sup>89)</sup>

有時，在一種令人沉重的寂靜中，他突然會聽見遙遠的地平線那邊，似乎隱隱約約有些隆隆的響聲。他抬頭看，天很晴，不像是打雷。啊，在那遙遠的地方，此刻什麼在響呢？是汽車？是火車？是飛機？不知爲什麼，他總覺得這聲音好像是朝着他們村來的。美麗的憧憬和幻想，常使他短暫地忘記了疲勞和不愉快；黑暗中他微微咧開嘴巴，驚喜地用眼睛和耳朵仔細搜索起遠方的這些聲音來。听着听着，他又覺得他什麼也沒有聽見；才知道這只不過是他的一種幻覺罷了。他于是就輕輕嘆一口氣，閉住眼睛靠在了樹干上。<sup>90)</sup>

이렇게 가오자린이 혼자 고민을 하고 있을 때면 류차오전이 조용히 찾아와 그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었지만 그의 고민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한다. 그의 마음

87)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118쪽.

88) 『人生』, 97-98쪽.

89)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129쪽.

90) 『人生』, 107쪽.

속에서 도시에 대한 동경과 이상이 되살아나 가오자촌을 떠나고 싶은 욕망이 강렬해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마을을 벗어나 번듯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을 가오자린도 잘 알고 있었다.

현성에 거름으로 쓸 인분을 수거하러 갔을 때 마주한 두 가지 사건은 가오자린의 도시에 대한 갈망을 부추긴다. 가오자린은 현성의 터미널 화장실 뒤에 자물쇠를 달아놓은 것을 보고 화가 나 문을 열고 들어가 인분을 푸다가 현에서 제일 잘 사는 선봉 생산대의 청년들과 마주치는데, 선봉대 청년들은 자신들이 터미널 간부에게 채소를 갖다 바쳐서 얻는 인분을 훔쳐가지 말라며 가오자린에게 화를 낸다. 결국 싸움까지 하게 되자 터미널 사람이 나와 말리면서 가오자린에게 ‘계약’을 맺은 것이니 똥을 가져가지 말라고 타이른다. 인분 수거조차도 정당치 못하게 뒷거래가 이루어져 독점되는 것을 보며 가오자린은 분노를 느끼지만 혼자서 그들과 맞서기에는 역부족이라 부식회사로 발길을 돌린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또 커난 어머니를 마주치게 되는데, 그녀는 역겨운 냄새가 난다며 그에게 면박을 주고 농촌 사람을 멸시하는 발언을 한다. 가오자린은 결국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그녀에게도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맞받아쳐 그곳을 나와 버린다.

수레를 끌고 큰길로 통하는 길에 접어들자 코가 시큰거렸다. 도시의 불빛도 하나 둘씩 꺼져 대부분의 건물이 땅거미 속으로 몸을 감추고, 강 너머 수문관측소만 여전히 불을 환히 밝히고 있었다. 강물 위로 길게 드리누운 주홍색 불빛이 한 덩이 한 덩이 타오르는 햇불처럼 잔물결을 따라 일렁였다. 자린의 마음속에도 햇불이 타올랐다. 똥수레를 길가에 세웠다. 눈물이 핑 돌아 그렇그렇한 눈으로 고요한 도시를 바라보았다.

‘나는 꼭 이곳으로 오고 말거야! 교양도 있고 지식도 있는 내가 여기 사는 젊은이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왜 이렇게 치욕을 당해야 하느냐고!’<sup>91)</sup>

他拉着架子車，轉到了通往街道的馬路上，鼻子一陣又一陣發酸。城市的燈光已經漸漸地稀疏了，建築物大部分都隱匿在黑暗中。只有河對面水文站的燈光仍然亮着，在水面上投下了長長的橘紅色的光芒，隨着粼粼波光，像是一團一團的火焰在水中燃燒。

高加林的心中也燃燒着火焰。他把糞車子拉在路邊停下來，眼里轉着泪花子，望着悄然寂靜的城市，心里說：我非要到這里來不可！我有文化，有知識，我比這里生活的年輕人哪一點差？我為什麼要受這樣的屈辱呢？<sup>92)</sup>

91)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150-151쪽. 단 ‘我非要到這里來不可!’가 ‘나는 왜 이곳에 와야만 하지?’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만 수정하였다.

92) 『人生』, 126쪽.

도시는 가난한 농민 신분으로 찾아온 가오자린에게 치욕을 안겨주었고, 가오자린은 자신이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것에 분노하며 농민이 아닌 신분으로 도시로 가서 성공하겠다는 야망을 더욱 불태우게 된다.

## 2. 농촌 지식청년의 도시 진출

농촌 청년이 도시로 진출할 기회를 잡는 것은 쉽지 않다. 대학교에도 진학하지 못하고 교사 자리도 빼앗겨 농민으로 돌아온 가오자린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시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확률은 매우 적었다. 하지만 그에게 운명적인 기회가 찾아온다. 가오자린의 숙부 가오위즈가 노동국장이 되어 돌아오자 그의 부하인 마잔성이 가오위즈 몰래 가오자린에게 현성에서 일할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다. 자린의 아버지 가오위더도 아들이 농촌으로 돌아와 있는 것을 넌지시 동생인 가오위즈에게 얘기해보았지만 가오위즈는 일자리 청탁은 들어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마잔성은 가오밍러우와 함께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가오자린의 민판교사 자리를 빼앗았던 일을 함부로 고발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오자린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었다. 가오자린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인생을 바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현성으로 간다. 현성에서 통신간사를 하게 된 가오자린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가오자린이 지금 술에 취한 듯 기쁨에 도취된 것도 이번에는 현성을 총총히 스쳐가는 나그네가 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현성의 일원이 되어 있었다. 물론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평생 이곳에 머물러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 도시에 자신의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웠다. 더군다나 이 도시에서 얼마나 주목받고 있는 자리인가! 통신간사는 말하자면 현의 ‘기자’였다. 곳곳을 다니며 취재하고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신문에 이름을 올릴 수도 있었다. 현에서 큰 회의가 열리면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장중하고 신성한 주석 단상을 당당하게 오르내릴 수도 있다!<sup>93)</sup>

93)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170쪽.

高加林現在之所以高興得如狂似醉，是他認識到，這次進縣城，再不是一个匆匆過客了；他已經成了縣城的一員。当然，他一旦到了這樣的境地，就不會滿足一生都待在這里。不過，眼下他能在這個城市占据一个位置，已經完全心滿意足了。何況，他現在的這個位置在這個城市是多么矚目啊！通訊干事，就是縣上的“記者”；到處采訪，又寫文章又照相，名字還可以上報紙。縣上開個大會，照相机一拷，敢在庄嚴神圣的主席台上平出平進！<sup>94)</sup>

가오자린은 자신도 채용비리의 피해자였으면서 정작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지자 뒷문으로 도시로 진출한다. 그의 이런 행동이 모순적이기는 하지만 당시 그가 도시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었다. 가오자린은 뒷문으로 들어간 것이 불안하지만 어쨌든 국가 간부가 됐으니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기사를 쓰며 상사의 인정을 받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게 된다. 그토록 도시를 갈망하던 가오자린은 자신의 재능을 펼치며 현성의 유명인사가 된다.

그는 늘 자긍심과 자부심에 벅차 있었고 자존심도 한껏 충족되었다. 가끔씩 자기도 모르게 거만해져 동지들과 대화할 때 날카롭게 말하거나 출중한 재능을 과시하며 오만한 표정을 얼굴에 흘리기도 했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의 경솔함을 깨달으면 식은땀을 흘리며 냉정한 자기반성과 함께 건방진 행동을 하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경고했다. 그에게는 더 큰 포부와 계획이 있었다. 이 현성에서 다다를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만족할 수 없었다. 자칫 잘못하면 앞날에 좌절이 찾아올 수도 있었다. 그는 이미 그의 인기를 시샘하는 수많은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다. 재능을 과시할 수 있는 자리를 의식적으로 피하기 시작했다. 한가할 때는 동강의 숲에 가서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아무도 없는 들판에 나가 전력으로 달리며 억누를 수 없는 내면의 희열을 발산했다.<sup>95)</sup>

他內心里每時每刻都充滿了一種驕傲和自豪的感覺，自尊心得到了最大的滿足。有時候也由不得輕飄飄起來，和同志們說話言詞敏銳尖刻，才氣外露，得意的表情明顯地掛在臉上。有時他又滿頭大汗對這種身不由己的沖動，進行嚴厲的內心反省，警告自己不要太張狂：他有更大的抱負和想法，不能滿足於在這個縣城所達到的光榮；如果不注意，他的前程就可能要受挫折——他已經明顯地感到了許多人在嫉妒他的走紅。

這樣想的時候，他就稍微收斂一下。一些可以大出風頭的地方，開始有意回避了。沒事的時候，他就跑到東崗的小樹林里沉思默想；或者一個人在沒人的田野里狂奔突跳一陣，以抒發他內心壓抑不住的愉快感情。<sup>96)</sup>

94) 『人生』, 142쪽.

95)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194쪽.

자신감이 충만해진 가오자린은 현재의 위치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이상을 품고 더 높이 멀리 날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던 차에 가오자린은 새로운 갈등을 겪게 된다. 황야핑이 기자가 된 그를 자주 찾아오면서 두 사람은 다시 고등학교 때처럼 국제문제와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가오자린도 다방면의 지식을 갖춘 그녀와 대화하는 것을 재밌게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류차오전이 가오자린을 만나러 와서 그의 이불이 얇다거나 마을에 일어난 시시콜콜한 일들을 따분하게 늘어놓자 가오자린은 황야핑과 나눴던 대화와 비교가 되어 짜증을 내고 만다. 자린은 차오전이 안절부절못하는 것을 보고 그녀가 안쓰러워지고, 그녀를 사랑하기에 백화점에서 빨간 스카프를 사 그녀에게 돌려주지만 마음 한 구석에 찝찝함을 느낀다. 그 후 가오자린은 조금만 한가해지면 야핑과 차오전이 번갈아 떠올리게 된다. 사실 황야핑과 다시 가까워지고 나서 그녀가 말이나 행동을 통해 자신에게 사랑의 암시를 보내오고 있는 것을 그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황야핑이 그를 찾아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며 같이 난징으로 가자고 하자 가오자린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며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물론 그는 야핑과 사귀고 싶었다. 모든 면에서 야핑이 그에게 어울렸다. 그녀는 교양 있고 영민한데다가 집안도 좋고 얼굴도 예쁜 남부 아가씨였다. 그의 눈에 그녀는 신비한 매력을 가진 여자였다. 차오전과 같은 이곳 여자들, 특히 농촌 여자들은 너무 익숙해서 한눈에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였다. 그녀들은 단순했다. 아니, 가끔은 단조롭다는 생각도 들었다.

반면 야핑은 알 것 같으면서도 또 알 수 없는 면이 있었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그녀에게는 그가 모르는 것들이 아직 많은 것 같았다. 집안 환경과 경제적인 차이, 서로 다른 생활환경과 성장 고정인 그들 사이에 어떤 벽을 만들었고, 그것이 오히려 그녀의 신비감을 더해주었다. 자린은 야핑이 구름에 휘감겨 있어서 자신은 다가갈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았다.<sup>97)</sup>

他当然想和黃亞萍結合在一起。他現在覺得黃亞萍和他各方面都合适。她有文化，聰敏，家庭條件也好，又是一個漂亮的南方姑娘。在她身上瀰漫着一種對他來說是非常神秘的魅力。像巧珍這樣的本地姑娘，尤其是農村姑娘，他非常熟悉，一眼就能看到底。他認為她們是單純的，也往往是單調的。

但是，黃亞萍他又了解又不了解。雖然一塊交往很多，但她好像還有無數更多的東西他

96) 『人生』, 162-163쪽.

97)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17쪽.

不知道。家庭出身和經濟條件的差別，不同的生活環境和個人經歷，使他們天然地隔了一層什麼，這反而更增加了他對她的神秘感。他覺得她雲霧繚繞，他不能走近她。<sup>98)</sup>

가오자린은 이상적인 여인으로 생각하던 황야핑이 고백을 해왔으니 그가 원하기만 하면 그녀와 함께 살 수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차오전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차오전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와 차오전은 이미 뜨겁게 연애한 사이였다. 자린에 대한 차오전의 사랑은 야핑에 대한 커난의 그것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야핑은 자신이 커난에게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는 가슴속 깊숙한 곳에 차오전에 대한 사랑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였다. 차오전의 아름다움, 선량함, 다정함, 온화함, 모든 것을 다 바친 헌신적인 사랑이 웅크리고 있던 그의 청춘을 처음으로 깨우고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고마웠다. 가오자촌에서 지내는 동안 비록 다른 고민은 있었지만 차오전이 있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풍부해질 수 있었다……<sup>99)</sup>

但他不能不認真考慮他和巧珍的關係。他和她已經熱烈地相愛了一段時間。巧珍愛她，不比克南愛亞萍差。所不同的是，亞萍說她對克南沒有感情，而他在內心深處是愛巧珍的。巧珍的美麗和善良，多情和溫柔，无私的、全身心的愛，曾最初喚醒了他潛伏的青春萌動；點燃起了他身上的愛情火焰。這一切，他在內心里是很感激她的——因為有了她，他前一段盡管有其它苦惱，但在感情生活上却是多么富有啊……<sup>100)</sup>

갈등하던 가오자린은 결국 사랑과 자신의 미래를 동일시하여 황야핑을 선택하게 된다. 평생 농민으로 살 것이라면 차오전은 훌륭한 짝이었지만 그녀와 결혼하면 현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그는 평생 이곳에 머물지 않고 더 멀리 넓은 곳으로 가서 앞날을 개척하고 싶었다. 이렇게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놓칠 수 없었다. 결국 가오자린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원대한 미래를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거야! 가끔은 자기 자신에게도 잔인해져야해!”<sup>101)</sup>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굳힌 후 류차오전과 이별한다. 황야핑과 새로운 현대식 연애를 하면서 가오자린은 가끔 차오전이 떠오르기도 하고 제멋대로인 야핑의 성격에 짜증을 낼 때도 있지만 금세 낭만에 취해 열애를 계속해 나간다. 그러던 중에 자린의 아버지

98) 『人生』, 182-183쪽.

99)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18쪽.

100) 『人生』, 183쪽.

101)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19쪽.

와 더순 영감이 가오자린을 찾아와 류차오전을 버린 일을 꾸짖지만, 자린은 자신의 결정을 되돌릴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보인다.

한참 뒤에야 자린이 고개를 들고 한숨을 쉬었다.

“옳은 말씀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장대에 올라타서 내려갈 수가 없어요. 두 분은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저도 나름대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두 분처럼 가오자촌에서 평생 땅이나 파면서 살긴 싫어요……. 식사나 하고 가세요…….”<sup>102)</sup>

老半天，他才抬起頭，嘆了一口氣說：“你們說得也許都對，但我已經上了這鉤杆，下不來了。再說，你們有你們的活法，我有我的活法！我不願意再像你們一樣，就在咱高家村的土里刨挖一生……我給你們買飯去……”<sup>103)</sup>

두 노인이 돌아가고 난 후 가오자린은 마음이 무거웠지만 새로운 소식에 곧 우울함을 떨쳐버리고 기쁨에 들뜨게 된다. 한 달간의 단기 신문교육반에 그가 참가하게 되면서 지금 서 있는 현성보다 더 큰 도시를 구경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대도시로 떠나는 날, 가오자린은 황야평이 준비해준 대로 차려입고 그동안 신지 않고 있던 캡토슈즈까지 신고서 그녀의 배웅을 받아 대도시로 향한다.

대도시를 견문하고 돌아온 가오자린은 이제 현성이 작게 보인다. 농촌에 있을 때는 현성이 그렇게 크고 변화해 보였지만, 대도시를 보고 온 후 그의 관점이 달라진 것이다.

버스에서 내려 터미널을 나오는데 갑자기 현성이 낮설게 보였다. 성곽이 이렇게 낮다니! 길이 이렇게 좁다니! 불행한 재난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사람도 적고 사망이 적막하게 느껴졌다.

변한 건 현성이 아니라 그였다. 누구든 변화한 대도시에서 이 외진 산간 도시로 돌아오면 그런 기분이 들 것이다.<sup>104)</sup>

他下了公共汽車，出了車站，猛一下覺得縣城變化很大，變得讓人感到很陌生。城廓是這么小！街道是這么短窄！好像經過了一番不幸的大變遷，人稀稀拉拉，四處靜悄悄的，似乎沒有什麼聲響。

縣城一點兒也沒變。是他的感覺變了。任何人只要剛從喧嘩如水的大城市再回到這樣僻靜的山區縣城，都會有這種印象。<sup>105)</sup>

102) 위의 책, 239쪽.

103) 『人生』, 201쪽.

104)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64-265쪽.

105) 『人生』, 225쪽.

가오자린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난 후 자신의 미래에 대해 더욱 자신감이 생겼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현성으로 돌아온 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현성의 통신간사가 된 일이 발각된 것이다. 황야핑과 교체하던 장커난이 갑작스런 이별로 인해 힘들어하자 커난의 어머니가 뒷조사를 해 농촌 출신 가오자린이 마잔성을 통해 뒷문으로 일자리를 얻은 것을 알아내고, 아들의 복수를 위해 당의 기율을 어긴 것을 그냥 둘 수 없다는 명목으로 당의 기율검사위원회에 고발을 한 것이었다. 가오자린의 숙부인 가오위즈는 소식을 듣고 자린을 해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기율검사 위원회에서는 가오자린의 채용비리에 대해 조사를 한다. 현 위원회 회의 결과 가오자린은 해임하여 도시 호구를 취소해 농촌의 생산대로 돌려보내고, 마잔성은 여러 번 채용비리를 저질렀으니 그 직위를 해제하기로 결정한다. 가오자린이 꿈꾸던 도시에서의 이상적인 삶은 그렇게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변해서 한여름 밤의 꿈처럼 사라지게 되었다. 이상이 좌절되자 가오자린은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인생이 그를 가지고 논 것인지, 그가 인생을 가지고 논 것인지는 그도 알 수가 없었다. 차오전이 자신과 자린의 관계를 한바탕 꿈이라고 생각했듯 그도 자신과 야핑의 관계를 백일몽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게 분명했다. 그는 다시 농민이 된 것이다. 그와 야핑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넘을 수 없는 골짜기가 생겼다. 야핑과 결혼해 그녀를 따라 난징으로 가겠다는……, 이 모든 계획이 순식간에 우스갯소리가 되어버렸다! 그를 향한 야핑의 굳은 사랑은 그대로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야 할 때였다. 그가 이상주의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또 매우 현실적이었다.<sup>106)</sup>

是生活開了他一个玩笑，還是他開了生活一个玩笑？他不得而知。正像巧珍認為她和高加林的關係是做了一場夢一樣，他感覺他和黃亞萍的關係也是做了一場夢。一切都是毫無疑問的：他現在又成了農民，他和黃亞萍中間，也就自然又橫上了一條無法逾越的鴻溝。和亞萍結婚，跟她到南京去……這一切馬上變成了一個笑話！即使亞萍現在對他的愛情仍然是堅決的，但他自己已經堅定地認為這事再不可能了；他們仍然應該回到各自原來的位置上。他盡管是個理想主義者，但在具體問題上又很現實。<sup>107)</sup>

가오자린은 더 큰 도시를 꿈꾸다가 좌절하고 사랑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제 황야핑과 난징으로 갈 수도 없고, 류차오전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버려

106)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67-268쪽.

107) 『人生』, 228쪽.

잡을 수 없다. 결국 그는 현실을 받아들여 야핑과 헤어지고 농촌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황야핑이 사주었던 캡토슈즈를 벗고 류차오전이 만들어준 형겔 신발로 갈아 신는다. 자린은 야핑이 처음 캡토슈즈를 사주었을 때 바로 신을 수가 없었고, 더 큰 도시로 갈 기회가 생겨 처음 그 신발을 신었을 때도 어색함을 느꼈다. 그건 아마도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신발을 억지로 신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고, 그가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던 양심의 가책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자린은 도시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형겔 신발을 신고 농촌으로 돌아간다. 차오전과 이별하며 농촌과 헤어졌던 그는 이제 황야핑과 이별하며 도시와 헤어져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 3. 좌절의 극복

#### 1) 끝이 아닌 결말

높은 이상을 품고 있던 청년이 좌절을 맛보게 될 때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꿈이 좌절되었다고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렸다고 볼 수는 없다.

가오자린은 마지막에 농촌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가 꿈꾸던 도시에서의 삶과 이상적인 미래가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황야핑과도 헤어져 이제는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됐으며, 류차오전도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해버려서 예전처럼 아낌없는 사랑으로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없다. 그는 가오자촌으로 돌아가는 길목인 다마허 다리에서 절망 속에 고통스러워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

누굴 원망할까? 지금 그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다. 아니, 자기 자신이 미워졌다. 그의 비극은 스스로 만든 것이다! 허영을 위해 삶의 원칙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락하고 만 것이다! 그는 천천히 깨달았다. 계속 이대로 살았다면 인생이 그에게 내린 이 별을 요행히 피했더라도 아마 다음에 찾아오는 별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그때는 아마도 완전히 파멸했을 것이라고 말이다…….108)

108)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82쪽.

這一切怨誰呢? 想來想去, 他現在誰也不怨了, 反而恨起了自己: 他的悲劇是他自己造成的! 他爲了虛榮而拋棄了生活的原則, 落了今天這個下場! 他漸漸明白, 如果他就這樣下去, 他躲過了生活的這一次懲罰, 也躲不過去下一次懲罰——那時候, 他也許就被徹底毀滅了……109)

가오자린은 자신이 뒷문으로 현성의 일자리를 얻은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회를 놓치지 싫어 그 자리에 들어갔고, 더 큰 꿈을 쫓기 위해 양심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까지 버렸다. 후회를 해봐도 때는 이미 늦었고,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기에 남은 원망할 수도 없었다.

냉혹한 현실은 그에게 가장 큰 교훈을 주었다. 자린은 그 순간 자만과 허영을 버리고 자신을 반성할 힘을 얻었다. 그는 생각했다. 야핑을 따라 난징에 갔더라면, 그가 평생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었을까? 그가 꿈꾸던 삶을 누리며 순탄하게 살 수 있었을까? 야핑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았을까? 난징에 그보다 재능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녀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장커난이 그랬듯 그도 버림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차오전과 결혼했다면 차오전의 사랑은 변치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평생 농촌에서 고된 일을 하며 살겠지만 아마도 행복할 것이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너무도 쉽게 내팽개쳐버렸다! 양심 없는 것이었다! 남은 해치는 건 자기 자신도 망치는 것이라던 아버지와 더순 영감의 말이 현실이 된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휘저어놓고 자신의 인생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렸다……110)

嚴峻的現實生活最能教育人, 它使高加林此刻減少了一些狂熱, 而增強了一些自我反省的力量。他進一步想: 假如他跟黃亞萍去了南京, 他這一輩子就會真的幸福嗎? 他能不能就和他幻想的那樣在生活中平步青雲? 亞萍會不會永遠愛他? 南京比他出色的人誰知有多少, 以後根本無法保證她不再去愛其他男人, 而把他甩到一邊, 就像甩張克南一樣。可是, 如果他和巧珍結了婚, 她就敢保證巧珍永遠會愛他。他們一輩子在農村生活苦一點兒, 但會活得很幸福的……現在, 他把生活中最寶貴的東西輕易地丟棄了! 他做了昧良心的事! 爸爸和德順爺的話應驗了, 他害了別人, 也害了自己! 他攪亂了許多人的生活, 也把自己的生活攪了個一塌糊塗……111)

가오자린은 도시에서 실패한 채로 돌아가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바라볼지도 두렵고, 차오전 없는 곳에서 다시 살 수 있을지도 걱정됐다. 그런데 자린의 걱정과는 달리 마을 사람들은 그를 위로하며 다정한 말로 반겨준다.

109) 『人生』, 242쪽.

110)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82-283쪽.

111) 『人生』, 242쪽.

“돌아오면 돌아오는 거지. 기죽을 거 없어!”

“아무렴! 세상의 태반이 농민이야! 바깥으로 나돌아 다니고 간부가 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

“농촌이 일은 고되어도 좋은 점도 있다니까! 무엇보다도 신선한 걸 먹을 수가 있잖아!”

“조급해하지 마라. 앞으로 나갈 기회가 또 있겠지.”

.....

다정한 마을 사람들! 그들은 누가 출세했을 때는 멀리 숨어버릴 수 있지만 실패했을 때는 너도 나도 투박한 손을 내밀어 도와준다. 그들은 늘 한결같이 불행한 사람에게 위대한 동정심을 베푼다! 자린은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북받쳐 올랐다. 목이 메어 말도 못하고 담배를 꺼내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주었다.<sup>112)</sup>

“回來就回來吧, 你也不要灰心!”

“天下農民一茬子人哩! 逛門外和当干部的總是少數!”

“咱農村苦是苦, 也有咱農村的好處哩! 旁的不說, 吃的都是新鮮東西!”

“慢慢看吧, 將來有机会還能出去哩。”

.....

親愛的父老鄉親們! 他們在一个人走運的時候, 也許對你躲得很遠; 但当你跌了跤的時候, 衆人却都伸出自己粗壯的手來幫扶你。他們那偉大的同情心, 永遠都會給予不幸的人!

高加林忍不住熱淚盈眶。他一句話也說不出來, 只是掏出紙烟, 給大家一人散了一根。<sup>113)</sup>

가오자린은 마을 사람들의 위로에 다시 발걸음을 옮겨보지만, 류차오전과 헤어졌던 장소에 이르자 잃어버린 그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 그때 더순 영감이 그의 앞에 나타나서 노동하는 건 무서울 게 없지만 자린이 잃은 건 금덩인 차오전이라며 안타까운 듯 말한다. 자린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고 싶지 않다고 하자 더순은 그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자신의 삶을 예로 들며 그에게 인생이 끝나지 않았음을 일깨워준다.

“쓸데없는 소리! 스물네 살밖에 안 된 놈이 그런 허튼 생각을 해? 네 말 대로면 난 진즉에 뉘졌어야지! 나는 일흔이 코앞인데 자식도 없고 한평생 홀아비로 살았어. 그런데도 아직도 가슴이 뜨겁고 몇 년이라도 더 살고 싶어! 나도 이런데 새파랗게 젊은 놈은 말해서 뭐해! 난 처자식도 없지만 사는 게 재미있다. 사랑도 해봤고 고통

112)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85-286쪽.

113) 『人生』, 245쪽.

도 꺾어봤어. 내 손으로 노동을 해보고 오곡을 길러보고 나무도 심고 길도 깔았지……. 이게 다 사는 재미가 아니고 뭐야? 젊은 애들 말로 행복 말이야, 행복! 넌 몰라. 과일을 따서 마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지! 안 그러냐? 너 어릴 적부터 내가 따주는 과일을 얼마나 많이 먹었어? 내가 나무를 심을 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넌 몰라. 내가 죽어도 후손들이 이 나무에 열린 과일을 따 먹으며 오래전 마을에 살았던 더순 영감이라는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라고 말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무를 심어…….”114)

“胡說!” 德順爺爺一下子站起來, “你才二十四歲, 怎么能有這麼些混帳想法? 如果按你這麼說, 我早該死了! 我, 快七十歲的孤老頭子了, 无儿无女, 一輩子光棍一條。但我還天天心里熱騰騰的, 想多活它几年! 別說你還是個嫩娃娃哩! 我雖然沒有妻室儿女, 但覺得活着總還是有意思的。我愛過, 也痛苦過; 我用這兩只手勞動過, 種過五谷, 栽過樹, 修過路……這些難道也不是活得有意思嗎?——拿你們年輕人的詞說叫幸福。幸福! 你小子不知道, 我把我樹上的果子摘了分給村里的娃娃們, 我心里可有多……幸福! 不是么, 你小時候也吃過我的多少果子啊! 你小子還不知道, 我栽下一撥樹, 心里就想, 我死了, 後世人在那樹上摘着吃果子, 他們就會說, 這是以前村里的光棍老漢德順栽下的…….”115)

더순의 말은 결국 가오자린의 마음을 움직인다. 자만심 넘치던 지식청년이 절망에 빠졌을 때 늙은 농사꾼에게 인생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될 줄은 가오자린 자신도 몰랐다. 가오자린은 더순의 말을 기억하고 인생을 새로 시작하기로 마음먹는다.

물론 이후 가오자린의 삶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할 수는 없다. 농촌 호구로 돌아와 농민이 되었으니 다시 도시로 나갈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차오전이 부탁해둔 교사 자리도 확정된 것도 아니다. 또한 자린의 내면에 남아있는 도시에 대한 갈망이 언제 다시 불타오를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촌에서 살게 된 그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볼 수도 없다. 가오자린이 현성에서 실패해 돌아오면서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더 크게 실패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절망의 순간에 더순 영감의 조언으로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다시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을 보면 이후 그의 삶에 대한 태도가 낙관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비록 그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미래는 아닐지라도 현실 속에서 소소한 성취를 이루며 살아가다보면 적어도 절망적인 인생은 아닐 것이다.

114)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88쪽.

115) 『人生』, 246-247쪽.

만약에 그가 다시 민판교사 자리를 얻게 되면 가난에 허덕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지식이나 문학적 재능도 써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농민으로 살더라도 정책이 바뀌면서 개인의 생산능력이 향상되고 있었기에 자린의 총명한 머리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비록 농촌 마을 안에서이기는 하지만 가오밍러우나 류리번보다 더 월등한 능력을 보여주며 그들보다 나은 삶을 살 수도 있다. 어쨌든 가오자린은 아직 이십대의 건장한 젊은 청년이고, 앞으로의 인생이 더 많이 남아있기에 인생의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니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작가는 『人生』의 마지막 장에 ‘并非結局’라는 부제를 달아놓았다. 소설의 결말 부분임에도 ‘결말이 아니다’라고 굳이 써놓은 것을 보면 주인공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암시를 주는 열린 결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의 번역본 제목도 그런 이유에서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지은 것으로 보인다. 작가 루야오도 20대 초반에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연인에게 이별까지 통보받아 절망을 느끼며 삶을 끝내려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인생을 끝내려던 순간에 그는 오히려 삶에 대한 애착을 느끼며 인생을 이어가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바로 작가의 이런 경험이 이 작품에 반영돼 좌절을 통해 인생의 깨달음을 얻는 가오자린이라는 청년을 만들어 냈고, 그러한 점이 수많은 젊은 독자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 2) 가치관의 재정립

작가는 이 작품의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류칭의 장편소설 『創業史』에서 아래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

인생의 길은 매우 길지만, 중요한 부분은 종종 몇 발짝에 불과하다. 특히 젊은 시절이 그렇다.

인생의 길이 곧고 갈림길이 없는 사람은 없다. 어떤 갈림길들, 예를 들면 정치의 갈림길이나 사업의 갈림길 또는 개인 생활의 갈림길 등은 한 발짝만 잘못 내딛으면 인생의 한 시기에 혹은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人生的道路雖然漫長，但緊要處常常只有几步，特別是当人年輕的時候。

沒有一个人的生活道路是筆直的、沒有岔道的。有些岔道口，譬如政治上的岔道口，事業上的岔道口，个人生活上的岔道口，你走錯一步，可以影響人生的一个時期，也可以影響一生。116)

그가 보기에 인생의 수많은 선택 중에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생이란 늘 개인이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갈등과 좌절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사회에 발을 디디다보면 개인적 요인이나 외부적 요인으로 갈등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좌절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오자린처럼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에만 인생의 초점을 맞추다보면 본래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흔들려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나 사회 속에 만연해 있는 불건전한 요소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제동을 걸기도 하고, 마잔성이나 가오밍러우처럼 사리사욕에 눈이 먼 사람들이 인생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젊은이들을 흔들어놓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는 마음에 조급한 선택을 하면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생겨버릴 수도 있다. 작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가오자린의 선택과 좌절을 통해 보여주면서 인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작품 속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직접 드러내기도 하고 더순 영감과 같은 인물을 통해 전달하기도 한다.

가오자린은 제도적으로 농촌에 묶인 자신의 운명과 사회의 불합리한 부분에 반발하면서 도시로 진출해 성공하려는 야망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부터 맹목적으로 이상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비리를 통해 얻어진 일자리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기회를 잡는가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사랑하는 여인을 버리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켜줄 조건을 갖춘 여인을 선택하여 뜬구름 같은 미래에 대한 환상만을 쫓으며 붕 떠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다 결국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사랑도 잃고 도시에 정착도 하지 못하고 농촌으로 다시 돌아오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작가는 이에 대해 작품에 직접 출현하여 다

---

116) 路遙, 『人生』, 北京, 北京十二月出版社, 2012.

음과 같이 말한다.

그렇다. 현실은 개인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벗어나려는 것은 이 지구를 벗어나려는 것과 같다. 사람은 이상을 가져야 하고, 때로는 환상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절대로 현실을 외면하고 가질 수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추구해서도 안 된다. 특히 인생길에 막 들어선 젊은이들에게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사회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불합리함을 털어버리고 밝은 태양이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환히 비추게 하고,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올바른 궤도로 올라서서 자기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조국의 미래는 젊은이들의 것이고, 또 젊은이들에게 달려 있다!

물론 젊은이들 자신도 이상과 현실을 정확하게 분간해야 한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정당하더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실현하려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 한 번 넘어지면 크나큰 고통을 당하고 심하면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다!<sup>117)</sup>

是的，現實是不能以個人的意志為轉移的。誰如果要離開自己的現實，就等於要離開地球。一個人應該有理想，甚至應該有幻想，但他千萬不能拋開現實生活，去盲目追求實際上還不能得到的東西。尤其是對於剛踏入生活道路的年輕人來說，這應該是一個最重要的認識。

可是，社會也不能回避自己的責任。我們應該真正廓清生活中無數不合理的東西，讓陽光照亮生活的每一個角落；使那些正徘徊在生活十字路口的年輕人走向正軌，讓他們的才能得到充分的發展，讓他們的理想得以實現。祖國的未來屬於年輕的一代，祖國的未來也得指靠他們!

當然，作為青年人自己來說，重要的是正確對待理想和現實生活。哪怕你的追求是正當的，也不能通過邪門歪道去實現啊！而且一旦摔了跤，反過來會給人造成一種多大的痛苦；甚至能毀掉人的一生!<sup>118)</sup>

즉 개인은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이상을 추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회는 젊은이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요소를 없애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사회는 계속 변화하고 발전할수록 새로운 갈등과 모순이 생겨나고 있고, 그러한 현상이 심화될수록 도시와 농촌의 교차지대와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런 상황에서 개인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생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작품에서처럼 개혁 개방을 막 시작한 격변의 시기에 현대문명

117)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68-269쪽.

118) 『人生』, 228-229쪽.

과 전통적 가치관의 충돌로 인한 혼란 속에 방황할 때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 올바른 가치관 또는 인생관은 본인이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닫거나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때 주변에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좌절로 인해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용기를 북돋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작가는 가오자린에게 조언을 해줄 인물로 더순이라는 농촌 노인을 설정해두었다.

더순은 가오자린이 민관교사에서 쫓겨나 익숙하지 않은 농사일을 처음하게 되었을 때 요령 없이 몸을 혹사시키는 것을 보면서 농사에도 요령이 필요하며 힘을 잘 분배해 천천히 하라고 조언을 해준다. 그리고 현성으로 간 자린이 차오전을 버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자린의 아버지와 함께 찾아가 도덕성에 대한 충고를 해주면서 착한 차오전을 버린 것을 질책하고 사람으로서의 근본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마지막에 자린이 도시에서 실패하고 농촌으로 돌아와 실의에 빠져 죽고 싶다고 할 때는 낙심할 것 없다면서 노동의 소중함과 소소한 행복의 의미를 말하며 인생에 대해 일깨워 주고 삶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준다. 특히 마지막에 더순 영감이 가오자린에게 자신의 인생관을 말해주는 부분은 작가가 방황하고 좌절하는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고 있다.

“쓸데없는 소리! 스물네 살밖에 안 된 놈이 그런 허튼 생각을 해? 네 말 대로면 난 진즉에 똬졌어야지! 나는 일흔이 코앞인데 자식도 없고 한평생 홀아비로 살았어. 그런데도 아직도 가슴이 뜨겁고 몇 년이라도 더 살고 싶어! 나도 이런데 새파랗게 젊은 놈은 말해서 뭐해! 난 처자식도 없지만 사는 게 재미있다. 사랑도 해봤고 고통도 겪어봤어. 내 손으로 노동을 해보고 오곡을 길러보고 나무도 심고 길도 깔았지……. 이게 다 사는 재미가 아니고 뭐야? 젊은 애들 말로 행복 말이야, 행복! 넌 몰라. 과일을 따서 마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안 그러냐? 너 어릴 적부터 내가 따주는 과일을 얼마나 많이 먹었어? 내가 나무를 심을 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넌 몰라. 내가 죽어도 후손들이 이 나무에 열린 과일을 따 먹으며 오래전 마을에 살았던 더순 영감이라는 홀아비가 심은 나무라고 말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무를 심어…….”<sup>119)</sup>

“胡說!” 德順爺爺一下子站起來, “你才二十四歲, 怎麼能有這麼多些混帳想法? 如果按你這麼說, 我早該死了! 我, 快七十歲的孤老頭子了, 无儿无女, 一輩子光棍一條。但

119)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88쪽.

我還天天心里熱騰騰的，想多活它几年！別說你還是個嫩娃娃哩！我雖然沒有妻室儿女，但覺得活着總還是有意思的。我愛過，也痛苦過；我用這兩只手勞動過，種過五谷，栽過樹，修過路……這些難道也不是活得有意思嗎？——拿你們年輕人的詞說叫幸福。幸福！你小子不知道，我把樹上的果子摘了分給村里的娃娃們，我心里可有多……幸福！不是么，你小時候也吃過我的多少果子啊！你小子還不知道，我栽下一撥樹，心里就想，我死了，後世人在那樹上摘着吃果子，他們就會說，這是以前村里的光棍老漢德順栽下的……”<sup>120)</sup>

더순은 젊은 시절에 연애도 해보고 좌절도 겪었기에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전형적인 농촌 노인들과는 달리 사고방식도 고루하지 않다. 그는 곡절 있는 삶을 살았으면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낙관적인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상적이고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런 낙관적인 인생 태도 때문에 그가 젊은이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노인 특유의 고집이나 보수성이 아니라 더 많은 동정과 이해를 담고 있다.”<sup>121)</sup> 그래서 더순은 좌절을 겪은 가오자린의 절망스런 심정을 이해해줄 수 있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작가 루야오도 이십대에 미래와 사랑 두 가지 방면에서 동시에 좌절을 겪어 매우 고통스러워하다 스스로 인생을 끝낼 생각까지 한 적이 있다. 또한 루야오의 동생 왕텐러(王天樂)도 농촌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나온 후 가난한 집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밖으로 돌아다니며 방황을 했었는데, 1980년 루야오는 연안에서 낚시꾼이 되어 살던 동생을 직접 만나 동생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을 준 적이 있다. 당시 루야오는 이 작품을 썼다 놓았다 하면서 순조롭지 못한 창작 과정에 애를 먹고 있었는데,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중국 농촌 젊은이들의 진로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그때 얻은 영감으로 농촌의 유망한 청년의 운명에 대한 내용을 작품에 반영하게 된다.<sup>122)</sup> 이처럼 이 작품에는 루야오 자신과 동생의 경험이 반영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고통과 좌절을 겪는 젊은이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내 생각에 청년이라면 어떤 시대와 어떤 나라에서 생활을 하든, 그들이 제일 처음

120) 『人生』, 246-247쪽.

121) 因為這種樂觀的人生態度,他對年輕人表現出的不是老年人所特有的固執、保守,而有着更多的同情理解在里面。劉成勇,「『人生』中德順老漢的形象分析」,『新余學院學報』,2014, 49쪽.

122) 厚夫, 앞의 책, 132-133쪽 참고.

생활의 노선을 선택할 때는 종종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나 자신이야말로 평탄치 못한 생활 노선을 걸어왔다. 그래서 나는 그런 고통과 좌절을 겪으면서도 억세게 생활을 추구하는 청년을 충분히 이해한다. 나는 영원히 거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의 운명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설령 내가 그들의 과실로 상심할 때가 있더라도 늘 선배 같은 관용적 태도를 지닐 것이다.

在我看來，只要是青年，不管他們生活在什麼樣的時代和什麼樣的國度。在他們最初選擇生活道路的時候，往往不會一帆風順。我自己就是從一條坎坷的生活道路上走過來的。因此我完全理解那些遭受痛苦與挫折而仍然頑強地追求生活的青年。我永遠懷着巨大的同情心關注他們的命運，即使我為他們的某種過失而痛心的時候，也常常抱有一種兄長般的寬容態度。<sup>123)</sup>

작가는 좌절을 겪은 젊은이들을 마치 예전의 자신을 보듯 또는 자신의 동생을 보듯이 동정심과 관용으로 바라보면서 인생 선배로서 그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용기를 주고 싶은 것이다. 바로 그런 마음을 더순이라는 인물을 통해 가오자린에게 말해주고 있다.

더순은 또 넓은 대지를 가리키며 자린에게 그가 나고 자란 농촌의 삶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도시는 가오자린이 오점을 드러냈을 때 매몰차게 그를 버렸지만 농촌은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그를 맞아주었다. 작가는 도시에서 실패한 가오자린을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결말을 선택하면서 농촌 사람들의 포용력을 보여주며 대지 위의 삶이 절망적이지는 않을 거라는 암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더순의 입을 빌어 하는 말은 농촌에서의 삶에 대해 낙관적인 말을 하고 있다.

“이 산, 이 물, 이 땅이 대대손손 우리를 기른 거야. 이 땅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암! 아무것도 없고말고! 일을 하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거야. 요즘 당의 정책이 좋아져서 하루하루 살기 좋아지고 있어. 농촌도 앞으로 크게 발전할 거야. 널 실망시키진 않을 게다! 낙심할 거 없어! 사내대장부는 넘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넘어졌다가 일어나지 못하면 죽은 개 신세가 되는 거야…….”<sup>124)</sup>

“就是這山，這水，這土地，一代一代養活了我們。沒有這土地，世界上就什麼也不會有！是的，不會有！只要咱們愛勞動，一切都還會好起來的。再說，而今黨的政策也對頭了，現在生活一天天往好變。咱農村往后的前程大着哩，屈不了你的才！ 娃娃，你不要灰

123) 『早晨從中午開始』, 142쪽.

124)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289쪽.

心! 一个男子漢, 不怕跌跤, 就怕跌倒了不往起爬, 那就變成个死狗了……”<sup>125)</sup>

작가는 왜 개혁 개방을 시작한 초기에 도시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청년에게 농촌을 긍정적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조언을 했을까? 인류의 거주는 농촌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도시는 나중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생겨난 공간이다. 농촌은 인간의 생존에 직결되는 식량을 공급하는 곳이며, 특히나 중국은 당시 인구의 80%가 농촌에 몸담고 있었다. 이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의 근본은 농촌에 있었고, 도시 사람도 농촌에서 생산한 것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농촌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간이다. 그리고 당시 중국의 농촌은 낙후되고 폐쇄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지만, 더순이 말하는 것처럼 정책이 변하면서 살기 좋아지고 있었다. 덩샤오핑이 집권하면서 중국은 이전의 정책들이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농촌의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정체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을 인지하고, 우선적으로 농촌 개혁을 추진하여 농업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였다. “몇 년 사이 농촌정책이 바뀌고 개체경제가 크게 발전해 장에 나가서 물건을 파는 것이 농민 생활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sup>126)</sup> 자유지의 농사와 가정 부업도 인정이 되었고, 무엇보다 집단생산체제인 인민공사제도에 변화가 생겨 농가생산 책임제, 개인생산청부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전보다 생산력이 증가되면서 농촌의 상황은 크게 호전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사람들이 도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터전이자 삶의 근간인 농촌을 무시하지 말고 제대로 돌아보길 바라며, 농촌도 발전하고 있으니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은 것이다.

위와 같은 작가의 태도를 “중국 전통사상이 서방 현대사상의 압박에 직면할 때 발생하는 현대성 불안에 대한 반영”<sup>127)</sup>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루야오는 향토 중국의 현대화 과정 중 전통 도덕이 직면한 위기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며, 향토 중국이 현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전통을 대해야하는가 라는 문제에 자신의 창작으로 대답하려고 시도했다. 비록 그런 노력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

125) 『人生』, 247-248쪽.

126) 『가오차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30-31쪽.

127) 魏家文, 「從路遙的小說創作看鄉土中國的現代性焦慮」, 『遵義師範學院學報』 Vol.9, No.5, 2007, 27쪽.

만 그래도 거대한 정신적인 감화력을 보여주었고, 루야오 본인이 표현해낸 적극적인 인생 태도는 분투하는 향토 중국의 자제들에게 정신적 양식을 제공했으며, 그들이 사회의 전환기에 느낀 생존성 억압(원한)이 작품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분출되었다.

路遙對鄉土中國現代化過程中傳統道德所面臨的危機異常焦慮，他試圖以自己的創作回答鄉土中國在現代化過程中如何對待傳統問題，盡管這種努力不盡人意，但仍然顯示了巨大的精神感染力，而路遙本人所表現出來的積極的人生態度，無意為那些奮鬥中的鄉土中國的子弟提供了精神上的食糧，他們在社會轉型期間所產生的生存性壓抑(怨恨)，通過作品得到了集中宣洩。<sup>128)</sup>

루야오는 전통도덕을 중시하기는 하지만 작품 속에서 더순이 개인생산청부제 시행을 지지하거나 당의 정책이 좋아져 농촌이 발전할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 등을 보면 현대적인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급진적이고 맹목적인 현대화가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전통과 현대가 만나 마찰이 발생할 경우 사람들이 취해야할 태도는 현실을 돌아보고 자신의 근본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가오자린이 갈등하고 방황하다 좌절을 겪고 난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당시 중국의 모습과도 비슷하다. 중국은 대약진 기간 동안 무리한 정책을 진행시킨 결과 역효과가 나 공업이 오히려 침체되고 농촌이 황폐화되며 대기근이 전국을 휩쓰는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 이후 문화대혁명 기간에도 극좌 정치로 인해 전국을 혼란으로 몰아넣으면서 사상이 압박받는 동시에 경제도 침체되어 삶이 나아질 줄을 몰랐다. 그렇게 20년이라는 긴 시련을 겪고 난 후 중국은 개혁 개방의 시기를 맞았다. 1978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들이 모여 제11기 3중전회를 개최하면서 “1957년 이후로 중국이 조급하고 극단적인 ‘좌’ 경향 향로로 치닫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그들은 이제 그 향로의 방향을 바로잡고자 했다. 기존의 향로에서는 인민들의 생활이 더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sup>129)</sup> 이 회의가 바로 개혁 개방 정책의 서막이었으며, 개혁의 순서는 우선 농촌이 먼저였고, 그 다음이 도시였다. 그동안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정책을 펼치느라 소외되고 침체되었던 농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시련을 겪고 난 중국은 새로운 개혁을 시행하면서

128) 위의 글, 27쪽.

129) 許知遠, 김태성 옮김, 『미성숙한 국가』, 파주, (주)이봄, 2017, 164쪽.

그동안의 오류를 경험삼아 농촌에 먼저 눈을 돌렸다. 공업에 집중하느라 소외되었던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생산성이 저조해 생활이 궁핍한 농촌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이후 농촌의 상황은 많이 호전되었다.

이처럼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사회가 새로운 개혁의 시기를 맞아 방향을 잡기 힘들 때는 현실을 인식하고 근본을 돌아보며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러한 내용일 것이다.

## V. 결론

루야오의 소설 『人生』은 개혁 개방 초기 농촌 지식청년 가오자린이 도시와 농촌의 교차지대에서 발생하는 모순으로 갈등하면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로 진출해 성공하려 하지만 좌절을 겪고 농촌으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속에서 주인공이 가치관의 혼란으로 도덕적 심리적으로 모순점을 드러내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좌절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오자린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젊은이들에게 인생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있다.

본문에서는 가오자린이 도시를 꿈꾸고 좌절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더순의 입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 있는 인생철학과 젊은이들에 대한 조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으며, 특히 1980년대 초 도시 진출에 실패한 청년에게 어쩌서 농촌의 삶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가치관을 새롭게 조언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개혁 개방 초기에 중국의 도시와 농촌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했다. 농촌은 생활수준부터 도시와는 크게 차이가 났으며, 낙후되고 폐쇄적인 환경에서 전통적인 삶을 답습하다보니 위생관념도 뒤처지고 연애관과 결혼관, 도덕관 등에도 고루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남아있었다. 이외에도 호구등기제도라는 중요한 제도적 문제가 도시와 농촌을 구분 지으며 농민의 거주지 이동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 농촌에서 태어나고 도시에서 공부한 가오자린과 같은 청년들이 자신의 이상을 펼칠 수 있는 도시로 진출하고 싶게 만들었다. 농촌 청년이 도시로 진출하는 방법은 도시의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도시에서 직업을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뒷문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사회의 불합리한 요소들까지 그들의 야망을 자극하면서 맹목적으로 이상을 쫓던 젊은이들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으면서 잘못된 인생의 길로 접어들어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

작가는 도시 진출에 실패해 실의에 빠진 주인공에게 좌절을 겪었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니 낙관적인 태도로 다시 삶을 시작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주인공

이 이상을 추구하는 것에만 급급하다보니 이상과 현실을 혼동하고 가치관이 흔들린 것으로 보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농촌에서의 삶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낙관적인 말을 해주고 있는데, 농촌은 양식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공간이자 다수의 인구가 삶의 근거를 두고 있는 근본이니 없어서는 안 될 곳이며,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 정책의 변화에 따라 농촌도 점차 발전하고 있으므로 농촌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당시 중국의 모습에도 비추어볼 수 있다. 20년간 암흑의 시대를 지나온 중국은 그동안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편향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오히려 경제가 침체되어 삶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개혁 개방 초기에는 그런 오류를 경험삼아 농촌의 경제를 먼저 살리면서 근본부터 개혁을 시작했다. 물론 이후로 중국은 현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발전을 거듭하다보면 부작용이나 새로운 모순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럴수록 작가가 주인공에게 조언한 내용처럼 현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의 중심을 확실히 잡고 제때 오류를 시정하면서 전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작가가 주인공에게 말하는 조언은 갈등하고 방황하며 좌절을 겪는 젊은 청년들에게 건네는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일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초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국 사회에 대한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다.

## 參考文獻

- 厚夫, 『路遙傳』,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5.
- 路遙, 『人生』, 北京, 北京十二月出版社, 2012.
- 路遙, 『早晨從中午開始』, 北京, 北京十二月出版社, 2012.
- 楊曉帆, 『路遙論』, 北京, 作家出版社, 2018.
- 安本實, 陳鳳 譯, 「“交叉地帶”的描寫—評路遙的初期短篇小說」, 『当代文壇』, 2008.
- 劉成勇, 「『人生』中德順老漢的形象分析」, 『新余學院學報』, 2014.
- 魏家文, 「從路遙的小說創作看鄉土中國的現代性焦慮」, 『遵義師範學院學報』 Vol.9, No.5, 2007.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알기 쉬운 도시이야기』, 과주, 한울, 2006.
- 路遙, 허유영 옮김, 『가오자린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고양, 예담, 2017.
- 신승하, 『中國當代40年史』, 서울, 고려원, 1993.
- 許知遠, 김태성 옮김, 『미성숙한 국가』, 과주, (주)이봄, 2017.
- 陳思和, 노정은 박난영 옮김, 『중국당대문학사』, 과주, 문학동네, 2008.
- 洪子誠, 박정희 옮김, 『중국당대문학사』, 서울, 비봉출판사, 2000.
- 백영선, 「『平凡的世界』에 나타난 주요 인물의 성장유형과 작가의식 고찰」, 『중국학』 vol.54, 2016.
- 백영선, 「路遙의 『平凡的世界』에 나타난 陝北 민속문화 고찰」, 『중국학』 Vol.58, 2017.
- 성근제, 「루야오의 ‘도농 교차시대’와 은폐된 서사」, 『도시인문학연구』 vol.9 no.1, 2017.
- 최정임, 「路遙의 『人生』 研究 : 주인공 高加林的 비극적 삶의 원인분석 중심으로」, 全北大學校 教育大學院, 2004.